

여름호

아트인cheon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Magazine



Vol.38 2017 • Summer

인천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정보지

<http://art.incheon.go.kr>

‘노래? 나보다 한 발 앞선 삶의 데칼코마니’

싱어송라이터 오혁재



Vol.38 2017 · Summer

아트인컷

인천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정보지



Cover Story

상트 페테르부르크 아이스발레단
〈백조의 호수〉

2017. 8. 22 ~ 8. 23 대공연장

등록일 2008년 5월

발행인 심우식

편집인 최구영

편집장 조우선

T. 032)420-2735 / E-mail. wocs4242@korea.kr

편집·교열 유은미

취재·기획 오수지, 권혜민

디자인 기획 전재삼

디자인·인쇄 네오다큐

취재 강창대, 이재은, 김본경

사진 유창호

디자인 최재임

발행일 2017년 5월 31일

발행처 인천문화예술회관

[21569]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149

<http://art.incheon.go.kr>

Contents

Column & Interview

- 06 **People1** 한국에서 온 경계 없는 음악_블랙스트링 허윤정
- 10 **People2** 이재은의 문학방 초대석 II_극작가 박근형
- 14 **공주형의 미술이야기** 문명의 시대, 서정적 풍경

Preview

- 18 **Screen** 2017 스테이지 온 스크린
- 22 **Theatre** 스테이지149-연극선집1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 24 **Classic** 클래식시리즈 II 〈바이에른 캄머 필하모니〉
- 26 **Musical** 스테이지149-창작뮤지컬 〈왕세자 실종사건〉
- 28 **Ballet**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백조의 호수〉

Review

- 30 **Cartoon-Review** '시, 시가 내게 왔다'
- 32 **Photo-Review** 인천시립무용단 I-DANCE 〈단원작가전〉
- 34 **Theatre** 인천시립극단 '열하일기만보' 를 보고

Information

- 38 **해외통신원** 바르샤바(Warszawa)에서_폴란드 통신원
- 42 **Issue**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 사태로 본 문화·예술의 현실
- 46 **Space** 콘서트홀 '열림아트센터'
- 50 **News** 인천문화예술회관 대표 아와상설공연 〈황금토끼〉의
- 52 **Performance** 6~8월 공연 소개
- 55 **Exhibition** 6~8월 전시 소개



“Borderless Music From Korea” 한국에서 온 경계 없는 음악

블랙스트링 허윤정

글 이진우 (전, 글래스톤베리 인천 사장) 사진 유창호



“경계가 없는 현대적인 음악을 하는 한국밴드 (contemporary borderless music from Korea)” 블랙스트링은 스스로의 음악을 정의함에 있어 ‘경계가 없는 (borderless)’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장르와 국경, 그리고 국악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선입견이라는 경계마저도 허물고자 한다.

‘해외메이저레이블인 ACT와 국내그룹으로서는 물론이고 아시아밴드로서도 최초로 음반제작 계약. 정규음반 다섯 장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의 음반계약을 체결. 2017년 제14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연주상 수상.’

올 8월 인천문화예술회관의 브랜드공연인 ‘커피콘서트’에서 만나게 될 밴드 “블랙스트링”의 이력이다. 작년 10월 첫(정규)앨범 〈Mask Dance〉 발매. 보자면 블랙스트링은 단 한 장의 앨범을 발매했을 뿐이다. 하지만 신예(?)밴드 “블랙스트링”은 이 한 장의 앨범이 발매되기도 전에 해외에서의 공연일정이 국내 일정보다 더 많은 정도로 해외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었다. 국내는 물론이고 아시아 그룹으로서는 최초로 해외 메이저 레이블 ACT와 파격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고 발매되자마자 한국대중음악상을 수상

하기도 하였다. 도대체 어떤 음악, 어떤 연주이기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어디든 떠나고만 싶어지던 봄이 절정이었던 4월 어느 날, 서울대학교 교정으로 블랙스트링의 리더 허윤정(거문고)을 찾아갔다. 그녀는 서울대학교 음악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었다. 음악대를 찾아가는 길엔 파릇한 어린잎들 사이로 꽃들이 저마다의 색들을 뽐내고 있었다. 음대 건물에 들어서자 들려오는 노랫소리, 다양한 악기소리가 넘실대면서 꽃들만큼이나 화려한 소리의 향연을 펼치고 있었다. 가만히 머물고만 싶어지던 “봄의 향연”이었다. 사뭇 설레는 마음으로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준 리더 허윤정님과 고즈넉이 세워진 거문고 옆에서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블랙스트링은 2012년부터 공식적 활동을 시작하였지만, 블랙스트링의 역사는 2011년 한국과 영국의 문화교환프로 그램인 ‘UK-KOREA 커넥션’ 프로젝트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과 영국의 뮤지션이 함께 연주회를 열고 앨범 발매까지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였다. 당시 블랙스트링의 멤버는 거문고 명인이라 불리는 허윤정, 기타리스트 오정수, 대금 연주자 이아람으로 3명이었는데, 이들은 영국



의 재즈 클라리넷 연주가 아룬 고시(Arun Ghosh), 재즈 색소포니스트 팀 가랜드(Tim Garland), 피아니스트 길라 임 심콕(Gwilym Simcock), 퍼커션 아사프 서키스(Asaf Sirkis)와 함께 영국에서 협연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으나 아쉽게 앨범 발매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고 한다.

“일회적인 프로젝트로 만났다가 헤어지기에는 멤버들 간에 호흡이 정말 좋았어요. 다시 뭉쳐서 한국의 정서가 담긴 새로운 음악을 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영국에서 돌아와서 오정수, 이아람씨와 셋이 연주활동을 이어갔고 리듬파트로 드러머와 협연도 해보고 앨범준비도 세 개의 버전으로 만들어가는 중에 아쟁, 장구 등 다양한 악기를 다룰 줄 아는 황민왕이 들어와 지금의 4인조 그룹이 되었습니다.”

해외활동을 계기로 결성되어선지 블랙스트링은 처음부터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활동을 시작했다. 블랙스트링의 프로모션을 담당하는 계명국(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사무국장)은 프로모션CD로 해외레이블들에 홍보하였다고 한다. 블랙스트링의 프랑스공연을 관람하게 된 ACT대표는 그 후 블랙스트링의 프로모션CD를 듣고 정규앨범 다섯 장을 발매하자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했다고 한다. 계약 후

ACT를 통해 본격적으로 녹음을 진행하여 블랙스트링의 첫 앨범 〈Mask Dance〉가 탄생한 것이다.

‘Mask Dance’는 블랙스트링의 앨범 제목이자, 수록곡 제목으로, 처용(處容) 가면을 쓰고 잡귀를 쫓는다는 내용의 처용무(處容舞)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처용의 이야기가 가진 기괴하면서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이미지를 음악을 통해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사운드적으로도 앰프와 이펙터들을 국악기와 결합하여 강렬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앨범에서는 국악 장단인 칠채를 바탕으로 완성한 ‘Seven Beats’, 진도 씻김굿(초가당석(진도씻김굿의 하나로 죽은 조상을 청해 축원하는 굿)중에 등장하는 신(神)에 관한 노래를 새롭게 재해석한 ‘Song From Heaven’, 문묘제례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듯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Strangeness Moon’ 등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 한국의 밴드음악이 나아갈 또 다른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인터뷰를 하기전 〈Mask Dance〉앨범을 참 열심히 들었다. 고백하건데 처음 이들의 음악을 들었을 때 전통악기/국악



을 기반으로 한 즉흥연주를 하는 블랙스트링의 앨범이 내겐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었다. 일정한 박자 위에 화음을 쌓고 정확한 멜로디가 있는 흔히 들을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음악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거문고는 멜로디를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강렬하게 줄을 때리면서 마치 타악기처럼 들렸다. 대금은 굴곡있는 구슬픈 소리를 통해 특유의 감성을 자아냄과 더불어 바람을 끊어 붙여넣으며 비트를 만들고 타악은 느렸다 빨라지며 익숙하지 않은 박자를 연주했다. 게다가 기타는 화음을 만들고 국악기와 주고받으며 솔로잉을 하고 있었다.

“익숙한 음악은 아닐 거예요. 저희는 즉흥이 살아있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자유롭고 즉흥적이고 실험적인 면에서 재즈적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 재즈적인 요소가 있진 않아요. 사실 블랙스트링의 음악은 재즈 그리고 전통음악이라 말하기도 어렵네요. 멤버마다 음악적 취향도 다릅니다. 하지만 연주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그 안에서 합을 만드는 과정 속에 음악을 만들죠. 내년엔 2집을 발매해야하는데 어떤 걸 해보려고 정해놓은 게 없답니다. 멤버 각자가 좋아하고 발현하고 싶은 음악을 할 뿐입니다”

그녀의 말처럼 블랙스트링은 익숙한 것이 아니었다. 필자는 이들의 변화무쌍한 음악을 그동안 들어왔던 음악, 알고 있던 범주 안에서 규정짓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들의 연주는 곡을 외워서 치는 연주가 아니다. 음반을 듣고 블랙스트링의 영상자료들을 찾아보면 이미 음반의 구성과 사뭇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8월 23일 커피콘서트로 만날 블랙스트링은 그날도 재즈보다 더 파격적인 즉흥, 록음악보다 더 강한 비트 그리고 전통음악의 토대 위에 장르를 넘나드는 노련함으로 어떤 융합보다도 절묘한 즉흥연주를 들려줄 것을 믿는다. 필자도 그날만큼은 생각을 이완시키고 그들이 만들어 낼 리듬과 소리에 자신을 고스란히 맡기고 부유해보고 싶다. 더불어 인천에서 이런 공연을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고 좋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인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이동민**

이재은의 문학방 초대석II

떠돌이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게 연극, 오직 연극

극작가 박근형

글 이재은(소설가) 사진 유창호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박근형, 극작가이자 연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아무것도 모르고' 극단에 들어갔고, 무대를 보았고, 배우를 만났고, 극본을 읽었고, 연기를 배웠고, 그렇게 연극을 알았다. 1963년생인 그가 첫 작품을 무대에 올린 해는 1986년. <침묵의 감시>, <광안일기>, <아스피린>, <주> 등을 발표하다가 1999년 <청춘예찬>이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연극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주인공이 된다. 1985년 76극단 입단 이후, 2003년 극단 골목길 창단 전후, 그가 무대에 올린 작품만도 수십 편. 최근작인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는 오는 6월 16, 17, 이들 간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상연된다.



이 글이 인터뷰 기사가 아니고 소설이라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를 글의 시작점에 밝히고 '왜'는 숨겨둔 채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했을 것이다. 하지만 <문학방 초대석>이라는 타이틀을 단 이 글은 픽션이 아닌 논픽션.

열아홉 겨울부터 한 길. 연극만 어언 35년째. 박근형 작가는 왜 연극을 했을까. 왜 연극이 하고 싶었을까. 왜 연극을 해야만 했을까. 따져 묻듯, 나는

"왜 연극이었나요?"

첫 질문을 했다.

습관적으로 짐작한 나의 일반론은 이랬다. : '인상적으로 본 연극이 있었겠지', '주변에 연극하는 사람이 있었겠지', '연극의 매력을 조금은 알았겠지'

돌아온 박근형 작가의 대답은 약간 의외였다. : "연극을 하면 떠돌이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집 떠나서 전국을 떠돌면서 사는 게 연극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유별나게 언급할 만한 특별한 계기도 없고, 연극영화화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때까지 연극은 교회에서 한두 번 본 게

다고, 그저 '떠돌이 생활이 나한테 맞겠다', '남자들의 세계를 경험해보고 싶었다'는 게 그가 연극을 시작한 이유. 그때 그의 나이 열아홉.

"극단에 들어갔는데 할 게 많더라고요. 훈련하고, 공부하고, 묻고, 듣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힘들었지만, 너무 좋았어요. 공연 연습하는 것도 보고, 포스터도 붙이고, 전단지도 돌리고, 청소도 하고, 그동안 제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들을 잔뜩 했습니다. 위로 누나들만 있어서 그랬는지 '형들의 세계'가 궁금했어요. 연극계에 남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곳은 제가 알고 있던 세계와 너무 달랐죠."

그곳에서 그는 "누군가를 혼드는, 달콤하지 않은 이야기"를 그렸다. "힘든 현실을 잠시 잊기 위한 환상의 장소"를 창조했다. "고통을 잊게 하는 순간진동제"를 제조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달콤하게, 데이트도 하고, 맥주도 한잔 하면서 '정말 예쁘지 않나?'하는 연극은 많습니다. 그 반대되는 연극도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를 보면 세상에 관한, 직설적인 것도 있고, 풍자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라고 고백했다.

관객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하거나 평론가들의 반응이 시원찮으면 여지없이 속상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니다. 호응이 좋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은데 그건 언제나 '배우들이 잘해줬기 때문'. 안 되면 내 능력 탓, 잘 되면 배우들과의 앙상을 덕분, 이라고 말하는 박근형 작가는 '조곤조곤'이 입술에 배어 있었다. 간결하게 대답하고 살짝 미소 짓고, 내 질문을 기다렸다. 먼저 말 꺼내는 법은 없었지만 빨리하고 끝내는 식으로 다그치지도 않았다. 가진 자의 여유.

"내가 생각하는 걸 표현하는 방법이 연극이니까, 이런저런 주제로 관객에게 보여주는 재미가 있어요."

그가 '연극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소설 쓴다는 사람이 언어를 이렇게 거칠게 옮겨도 되나?

나의 회상

지금은 영화배우로 잘 알려져 있지만 윤재문 씨가 연극하던 시절, 그가 나온 <청춘예찬>을 본 적 있다. 예의 그 험한, 돌 같은 무표정으로 기타 치며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는 송창식의 것이었고 나는 여러모로 우울한 <청춘예찬>에 흠뻑 반했다. 그 연극을 기억했고, 극작가 박근형을 마음에 새겼고, 윤재문이 부른 송창식 노래가 너무 좋아서 얼마 후 '썩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는 제목의 소설도 썼다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박근형 작가와 마주하다니, 이십 대의 나는 눈먼 전처에게 용돈을 타 쓰는 아비와 스물두 살 아들의 캄캄한 동거를 그린 <청춘예찬>을 '박근형'으로 기억했다. 나도 내 글로 누군가의 가슴을 찌르고 싶었고, 고통과 슬픔을 낮은 곳에서 직시하게 하고 싶었고, 보이지 않는 거리감을 좁히며 함께 웃고, 설령 일순간일지라도 카타르시스의 쾌감을 맛보게 하고 싶었다.

부끄럽게도 그 후로 박근형 작가의 작품을 보지 못했고, 나의 실토에 작가는 "괜찮아요" 하며 슬며시 웃었다. 그때 나는 '이분도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느꼈는데 그 감정의 연원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가 아니라 존재 때문이란 걸 금방 알 수 있었다. 연극하는 사람의 존재, 글 쓰는 사람의 존재, 그리고 인간의 존재. 거의 반사적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누군가의 선언(?)이 떠올랐고, 나는 그 문장을 좋아했으므로, 그 문장을 생

각나게 한 박근형 작가 역시 좋았다. "박근형은 안개비 같았다. 함박눈 같았다. 미풍 같았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나는 페이스북에 그렇게 적었다.

"술, 좋아하세요?"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물어보는 수밖에. 안개비 같고, 함박눈 같고, 미풍 같은 그에게 말이다. "창작과 관계된 작업도 술자리에서 하고, 징크스나 창작공포증도 술로 푸신다니요?"

"술이 한두 잔 들어가면 속 이야기를 하게 되고, 배우들도 평소에 하지 못한 생각을 털어내서 좋아요. 깊이 있게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색, 다른 결을 보게 되잖아요. 연극은 배우들 각자가 연기를 잘 하는 것보다 팀워크가 중요하거든요. 1박 2일 엠타를 가면 게임부터 해요. 컵차기, 마피아게임, 족구도 하고요, 사실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연습의 반이에요. 술은 소통의 매개일 뿐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에요."

"인천, 좋아하세요?"

"인천 근사하죠."

"태어나서 처음 간 바다가 송도해수욕장이예요. 배 타고 영종도 가서 조개구이도 먹고, 차이나타운도 가고 그랬어요."

박근형 작가는 1997년 즈음부터 7, 8년간 인천에서 살았다. 가정오거리 삼화고속 종점 부근이었는데 주변에 마나리강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인천에 '센 게' 많았어요. 당구도 쏘고, 밴드도 그렇고, 예전엔 인천 출신 연극배우도 많았어요. 서울하고 가까우니까 나중에는 서울로 다 올라왔지만."

지금 이 순간

그동안 여러 번 인터뷰를 했지만 지금 이 순간, 오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을까? 그가 요즘 하는 생각, 현재의 이야기는 뭘까? 읽고 있는 책이나 최근에 보고 들은 것 중에 좋았던 것, 상심했던 일이나...

"sns라는 거, 나는 안 하고, 또 못 해요. 그런데 거기 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폐해가 지나친 것 아닌가. 근황이나 정보 등을 공유하는 건 순기능에 속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자주, 기계에 대고 떠드는 것 같아요. 떠돌이 중독된 것처럼, 떠버리가 된 것처럼. 인간이라면 사적인 게 있어야 하고, 내밀함이란 게 비밀 등을 안고

있는 시간도 필요한데 너무 쉽게 공개하니까 그게 나중에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연극 이야기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는 서로 다른 군인이 등장하는 네 가지 사건으로 연결돼있다. 남한 육군 탈영병 도주극(2015년), 조선인 가미카제 자살특공대원(1945년), 이라크 무장단체 인질극(2004년), 백령도 초계함 군인들의 고백(2010년). 각각의 사건은 교차 편집되면서 사건의 전말을 드러낸다.

'왜' 모든 군인은 불쌍한가.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를 주장이나 의견으로 널리 공표할 수 있을까. 연극 속 인물들은 모두 자신의 운명을 모른다. 연극의 막바지, 도주극을 벌였던 탈영병은 "어차피 사는 게 전쟁이고, 우리 모두 군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 세상은 커다란 군대가 되고, 관객은 자기도 모르게 군인으로 녹아든다. 우리도 그들처럼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사는 건 전쟁이다. 부인할 수 없는 불쌍함, 혹은 어떤 짝함.

이 연극은 지난해 도쿄 페스티벌에 초청돼 일본에서도 공연했다. 이런 한국(사람) 이야기야, 하는 어께 너머의 시선이 아닌 '우리 이야기'로 보는 관점의 확장을 느꼈고, 동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은 나라와 국경을 초월해 서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걸 새삼 확인했다. "일본에서는 가미카제를 직접 언급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라크 선교 갔다가 죽은 일본인도 있으니 요소요소에서 흥밋거리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의 꿈

"시집을 하나 내고 싶었어요. 제목도 정했어요. 북시(北詩)라고. 부모님이 이북에서 오셨거든요. 전해들은 것도 있고, 이북의 정서를 시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전라북도를 가보면, 남도와는 많이 달라요. 北의 이미지, 거기서 오는 낯선 감정... 썩은 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집 하나 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배우의 대사는 시여야 해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일상 언어로 쓴 시." **이재은**



문명의 시대, 서정적 풍경



조지프 라이트, 〈포살리포에서 바라본 배수비오 화산〉, 63.5 x 83.8 cm, 1770~1780년경

비극적 운명의 사건

18세기 영국은 계몽과 산업 혁명의 시기였습니다. 산소를 비롯해 여러 원소들이 실험을 통해 실체가 증명되었고, 최첨단 기계들이 작동하는 공장들도 세워졌던 때였지요.

조지프 라이트(Joseph Wright, 1734~1797)는 급변하는 시대 징후를 예술적 화두로 삼은 화가였습니다. 잘 꾸며진 실내에서 부유함을 뽐내는 상류층을 그림 주인공으로 내세우지 않았지요. 그렇다고 역사와 신화 속 영웅과 신들로 캔버스를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등장인물의 사각거리는 옷자락과 신비로운 면모를 재현하는데 무심했어요. 그런 화가는 당대 주류 미술계가 거리가 있는 낯선 주인공을 선택했습니다. 어두운 실내에 놓인 공기 펌프와 태양에 모형 같은 과학 실험 도구들이었지요.

화가가 나고 자랐던 영국 중부 도시, 더비 영향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시대 변화를 직접 목격할 수 산업혁명

의 중심지였거든요. 영국 최초 현대식 기계가 놓인 실크 공장도 바로 이곳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천목 도모가 모임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회원들의 공동 관심사는 새로운 과학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 실험을 지켜보고 토론을 했지요. 일종의 과학 탐구 모임이었지요.

‘루나 소사이어티’ 역시 당대 과학 모임이었습니다. 시인과 신학자, 발명가와 철학자 등. 1765년 시작된 모임의 구성원은 다양했습니다. 모임 명칭처럼 회원들은 한 달에 한 번 보름달 뜨는 날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당시 가로등이나 조명 시설이 열악해 달이 휘영청 밝은 날을 택했겠지요. 〈새를 대상으로 한 공기 펌프 실험〉은 루나 소사이어티 모임의 구체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보름달 뜨는 날 회원들이 모였군요. 그림 오른쪽 작은 창문 너머로 보름달이 보입니다. 오늘은

산소의 정체를 밝히는 과학 실험이 한창입니다. 당시 공기 중 산소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기는 색깔도, 냄새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새를 대상으로 한 공기 펌프 실험〉과 같은 증명의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실험 과정은 좀 잔인합니다. 우선 살아있는 새를 밀폐된 유리병 안에 넣고, 그 다음 유리병에서 산소를 빼냈어요. 새의 죽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산소의 존재를 규명하려 한 것이지요. 그림 속 새로운 과학 실험에서 비롯된 사람들의 반응을 다채롭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킨 성공적 실험을 주제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이들은 새의 죽음에 마음의 동요가 심한 것 같군요.

화가는 과학 실험 뿐 아니라 과학 강연을 다룬 그림도 그렸습니다. 〈태양계에 관한 강의를 하는 철학자〉가 그렇습니다. 그림 제목으로 지금 천체 질서와 우주 신비에 관한 강의가 진행 중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백발의 철학자나 회원들의 모습은 어둠에 묻혀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반면 그림 중앙에 놓인 18세기 초 발명된 과학 모형 ‘태양계’는 빛을 받으며 놓여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극

명한 대비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데 탁월한 기량을 발휘했던 화가의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되었군요. 늦은 밤, 특별한 무대의 빛나는 주연은 과학 도구입니다. 그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조연에 불과합니다.

과학을 예술의 주인공으로 삼았던 화가는 고향에서 생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미술 공부를 위해 런던에 머물기도 했지만 과학과 산업의 중심지 더비는 언제나 삶의 중심이었지요. 사람들은 이런 화가를 같은 이름 선배 미술가와 구별도 할 겸 조지프 라이트 더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좀처럼 고향을 떠나지 않았던 화가 삶에서 여행이 각별히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미술가는 1773년 말부터 이듬해까지 2년 동안 이탈리아 여행을 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고전, 고대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랜드 투어’라 불리던 이탈리아 여행은 이런 시대의 분위기와 관련이 깊습니다. 대부분 여행객들은 가톨릭 근거지인 로마에서 고대 유적을 살펴 본 후 르네상스 발상지인 피렌체를 거쳐 나폴리로 향했습니다. 화가의 이탈리아 여정도 다른 여행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화가는 여러 도시를 거쳐 1774년 가을, 이탈리아 남단 항구도시 나폴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배수비오 화

산이 있는 도시였지요. 화가가 나폴리를 찾았을 때 기원전 1세기 폭발했던 화산은 완전히 활동기 단계는 아니었어요.

화산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풍광은 미학적 자극을 제공했습니다. 비좁은 실험실에서와는 또 다른 예술적 감흥이었지요. 특히 화가는 화산 주변을 둘러싼 신비한 색깔과 느낌의 빛에 매료되었어요. 빛을 형상화 하는데 의지가 남달랐으니 그럴 수밖에요. 실험실 탁자에 놓인 촛불과 공장 창문에서 새어 나오



조지프 라이트, 〈새를 대상으로 한 공기 펌프 실험〉, 1768



조지프 라이트,
〈태양계에 관한 강의를 하는 철학자〉, 1766

는 불빛까지. 그동안 미술가는 인공조명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과 천둥을 동반한 번개의 번쩍임도 형상화하고자 해왔어요. 그러니 분화구에서 연기를 내뿜고, 용암을 분출 중인 화산 주변 신비로운 빛에서 눈을 떼기 어려웠을 수밖에요.

화가의 여행지에서 목격한 장관에서 영감을 얻어 30점 이상의 화산 연작을 남겼습니다. 화산의 장엄함을 표현하고자 과거와 당대 거장들의 표현 기법을 두루 사용할 정도였지요. 〈포실리포에서 바라본 베수비오 화산〉도 그중 하나였지요. 그런데 그림은 다른 화산 연작과 좀 다릅니다. 다른 풍경들처럼 과거 고대도시를 집어삼켰던 화산의 힘과 위엄을 표현하는데 역점을 두지 않았습니니다. 자연의 감당할 수 없는 위력이 초래한 공포와 긴박감도 담지 않았습니니다. 그 보다는 구름 사이 달빛과 화산 근처 붉은 기운으로 낭만적 분위기를 극대화했지요. 그림 속 붉은 기운을 토해내는 화산들보다 어두운 밤바다 위 천천히 노를 젓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정박 중인 항구의 배들에 먼저 눈길이 가는 이유입니다.

해질녘,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쏟아내는 정보와 문자 사이에서 종종거렸던 하루가 비로소 여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야 컴퓨터 모니터와 휴대전화 액정에 고정되어 있던 사진

을 거둬 주위를 둘러봅니다. 머리 위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더군요. 가깝고도 먼 아름다운 광경이 산업혁명 정신을 재빨리 포착한 화가가 그린 풍경처럼 낭만적이고 눈부시게 다가옵니다. 문명의 이기가 삶의 안쪽으로 육박해 들어올수록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것들의 소중함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자본의 썸법이 복잡해질수록 소유가 불가능한 것들의 존재감이 더욱 커져만 갑니다. 첨단 과학과 산업의 시대, 퇴근길 우연히 마주한 서정적 풍경처럼 말이지요.

이동민

글 공 주 형
미술평론가
한신대학교 교수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박수근 회화론으로 박사 학위 취득, 200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등단. 저서로 〈사랑한다면 그림을 보여줘〉, 〈색깔 없는 세상은 너무 심상해〉, 〈착한 그림 선한 화가 박수근〉, 〈나를 완성하는 미술관〉 등. 현재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

SUMMER FESTIVAL

여름방학 청소년 음악축제 썸머페스티벌 2017

2017. 8. 8(화) ~ 8.12(토)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8.8(화) SPM
루체유적소사이터의
말레모음곡



8.9(수) SPM
코리아코오편지사의
오페라갈라콘서트



8.10(목) SPM
인천시립합창단
제156회 정기연주회



8.11(금) SPM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8.12(토) 7PM
국악관현악과 함께하는
종말! 팔도민요여행

※ 프로그램 및 출연진 등 서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관람료 전석 1만원 (썸머패키지 3만원)

관람연령 8세 이상 (미취학 아동 입장불가)



주최 인천문화예술위원회



주관 인천문화예술위원회



주관 인천문화예술위원회



후원 인천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예매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http://art.incheon.go.kr> 예매수수료 무료) | 엔티켓 1588-2341 | 인터파크 1544-1555



名作, 달빛스크린으로 들어오다

'2017 스테이지 온 스크린'

여름 끝자락, 야외광장에서
동시대 최고의 공연을
대형스크린과 광활한 사운드로 즐긴다

공연일시 : 2017년 8월 30일(수)~9월 9일(토) 수·목·금·토 저녁 7시 30분

*우천으로 인한 취소프로그램 발생시 일요일 순연 상영 예정

공연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상영장르 : 오페라, 발레, 뮤지컬 공연실황

관람료 : 무료

문의 : 기획담당 032)420-2731

프로그램 상영일정

- 8.30(수) 프랭크 와일드혼의 뮤지컬 <지킬 & 하이드>
2000 브로드웨이 폴리머스 극장 공연실황
- 8.31(목) 아돌프 아당 발레 <해적>
2014 영국국립발레단 공연실황
- 9. 1(금) 루드비히 민쿠스의 발레 <돈 키호테>
2015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 공연실황
- 9. 2(토) 도브 아티아 & 알버트 코엔의 뮤지컬 <1789, 바스티유의 연인들>
2012 프랑스 파리 팔레 데 스포츠 극장 공연실황
- 9. 6(수)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2010 이탈리아 카를로 펠리체 극장 공연실황
- 9. 7(목)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2015 오스트리아 브레겐츠 페스티벌 공연실황
- 9. 8(금) 모차르트의 오페라 <후궁탈출>
2015 영국 글라인드번 오페라 페스티벌 공연실황
- 9.10(토) 마셀 쇠넬의 뮤지컬 <미스 사이공>
25주년 특별공연(영국 프랜스 에드워드 극장) 공연실황

*프로그램은 주최측 사정에 의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연예술계의 최신 트렌드, 스크린으로 즐기는 무대

공연을 영상으로 즐기는 트렌드를 이끈 선두주자는 단연 미국 오페라의 1번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이다. 2006년 소니 클래식 CEO 출신의 피터 젤브가 새로운 단장으로 취임하면서 조직의 수익 개선 사업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로 공연 영상화 작업에 뛰어들었고, 사업 개시 2년 만에 오페라극장보다 더 많은 수의 관객이 상영관에 몰리면서 성공하게 되었다. 이후 이탈리아 라 스칼라, 영국 로열오페라발레, 러시아 볼쇼이 발레, 미국 LA 필하모닉, 영국국립극장이 앞다투어 새로운 흐름에 가담했고, 세계 유수의 공연단체의 공연실황을 전 세계 영화관에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기획 5년차 <스테이지 온 스크린>, 전년대보다 더 화려하고 진귀한 작품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이러한 공연계의 최신 트렌드를 포착하여 <스테이지 온 스크린 Stage on Screen>을 2013년부터 기획·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4년간 총 32편의 오페라, 발레, 뮤지컬 공연실황이 소개되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 영국로열발레단, 볼쇼이발레단,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등 세계 유수의 공연단체의 최고

의 공연으로 엄선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획 첫해부터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올해로 벌써 5년차를 맞이한 <스테이지 온 스크린>. 올해는 예년보다 더 화려하고 진귀한 작품들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 벅찬 오페라, 발레, 뮤지컬 공연실황 총 8개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530인치의 대형스크린과 광활한 사운드

여름 끝자락 늦더위가 주춤하며 가을로 접어드는 8월 말, 회관 앞 광장에는 530인치의 대형 에어스크린이 설치된다. 일몰이 시작되면서 가족, 연인, 친구, 직장동료 등 삼삼오오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평소 관람료 부담 또는 내한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공연을 접하기 위함이다. 때론 세계 최고의 성악가들이 부르는 오페라 아리아가, 때론 초대형 스펙터클한 화려한 뮤지컬 영상이, 때론 주역 발레리나와 발레리노의 화려한 테크닉과 함께 우아한 춤이 지나가면 관객들의 시선과 발걸음을 붙잡는다. 달빛이 머무는 너른 광장으로 친구, 연인 또는 가족끼리 일상의 낭만과 여유로움 그리고 소소한 재미를 만끽해보는 것이 어떨까?



8.30 - 프랭크 와일드 혼의 뮤지컬 '지킬 & 하이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괴기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를 원작으로 작곡가이자 뮤지컬 제작자인 프랭크 와일드 혼과 작사가 레슬리 브리커스가 함께 제작한 뮤지컬 〈지킬&하이드〉, 'Once upon a Dream', 'This is the Moment', 'Someone like You' 등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로 대중의 관심을 끈 이 작품은 1997년 브로드웨이에 입성해 '드라마데스크상', '비평가협회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하였고 '토니상'에 노미네이트되었다. 2000년 두 가지 인격을 지닌 지킬/하이드 역은 TV 팝스타들이 대거 투입되기도 하였는데, 그중 한 사람이 데이빗 핫셀호프이다. 국내 팬들에게는 외화 '전격Z작전'에서 말하는 인공지능 자동차 키트를 몰고 다닌 배우로 잘 알려진 데이빗 핫셀호프가 양면성을 지닌 지킬/하이드 역을 맡아 열연한다.



8.31 - 아돌프 아당의 발레 '해적'

영국 바이런의 서사시 〈해적〉을 토대로 탄생한 스펙터클 걸작발레 〈해적〉. 터키의 악덕부호에게 노예로 팔린 아름다운 그리스 소녀들을 정의로운 해적이 구출하는 내용을 담은 이 작품은 평론가와 관객이 예찬했듯이 볼거리가 풍성한 작품이다. 폭풍우 장면으로 시작하는 서막, 이국적인 지중해의 해변, 복제대는 아라비아 풍의 노예시장, 바다가 보이는 동굴에서의 해적들의 장쾌한 춤 등 변화무쌍한 볼거리 속에서 발레의 절정을 완벽하게 이끌어낸다. 2014년 영국국립발레단의 이 작품은 안나-마리 홈즈가 제작한 작품으로 영국로열발레단의 슈퍼스타였다가 영국국립발레단으로 이적한 알리나 코조카루와 이 작품 직후 영국로열발레단으로 영입된 영국국립발레단의 프린시펄 바덤 문티기로 프가 환상적 호흡을 자랑하며 발레관객들을 설레게 한다.



9.1 - 루드비히 밍쿠스의 발레 '돈 키호테'

결혼해프닝을 둘러싼 스페인풍의 유쾌한 희극발레 〈돈 키호테〉. 스페인의 엉뚱한 돈키호테와 그의 시종 산초판자의 여행담을 담고 있는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와 달리 아돌프 아당의 발레는 가난한 이발사 바질리오와 그의 연인인 선술집 딸 키트리리의 사랑이야기로 담고 있다. 키트리리와 바질리오의 발랄함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가를 보는 것이 묘미인 이 작품은 흥미진진하고 화려한 스페인풍의 다양한 볼거리가 연속적으로 펼쳐진다. 2015년 스칼라극장에서 상연된 이번 작품에는 현존하는 최고의 발레리나이자 키트리리로 손꼽히는 볼쇼이 프린시펄 출신의 나탈리아 오시포바와 현존 최고의 발레리노이자 바질리오로 명성이 높은 마린스키 프린시펄의 리오니드 사라파노프 등 최고의 무용수들이 참여해 최고의 〈돈 키호테〉를 선사한다.



9.2 - 도브 아티아 & 알베트 코옌의 뮤지컬 '1789, 바스티유의 연인들'

1789년 봄부터 프랑스 인권선언이 있었던 8월 26일까지를 배경으로 프랑스 혁명 당시 대립된 두 진영에 있었던 남녀 주인공들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프랑스 뮤지컬 〈1789, 바스티유의 연인들〉. 스토리와 음악, 춤 그리고 화려한 볼거리와 감동까지 '프랑스 뮤지컬'을 구성하는 주요 공식을 완벽하게 따르고 있는 이 작품은 초연당시 평단으로부터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 팝, 발라드, 락까지 다양한 장르가 공존하는 매혹적인 뮤지컬 넘버와 대작뮤지컬의 스케일을 증명한 500여벌 이상의 의상과 웅장하고 화려한 무대장치는 베르사유 궁전 안 왕족들의 호화스러운 모습과 혁명을 외치는 평민들의 피폐한 삶까지 완벽하게 재현한다. 50여명의 배우들과 댄서들의 일사불란한 군무와 감정을 한껏 실은 아름다운 몸짓이 보는 이의 눈을 단번에 매혹한다.



9.6 -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푸치니의 사실주의 스타일의 현대적 오페라 〈토스카〉. '예술에 살고, 사랑에 살고', '오묘한 조화', '별은 빛나건만' 등 귀에 익은 아리아가 많이 들어있지만, 그 어떤 작품보다 폭력적이고 비극적인 작품이다. 2010년 제노바 카를로 펠리체 극장의 공연은 제노바 출신의 세계적인 가수인 다니엘라 데시와 파비오 아르밀리아토가 함께 무대에 선다. 무대 위에서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긴밀한 호흡을 맞추고 있는 동반자인 이들은 함께 무대에 섰을 때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하는데, 가장 자신있게 내세우는 작품이 바로 푸치니의 〈토스카〉이다. 특히 다니엘라 데시는 우리시대를 대표하는 토스카의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작년에 생을 마감한 우리시대 최고의 토스카, 다니엘라 데시가 마지막으로 노래하는 토스카가 관객들에게 베푼 감동을 선사한다.



9.7 -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푸치니 3대 명작으로 꼽히는 〈투란도트〉. 이국적인 소재를 숨쉴수록 다뤄내는 탁월한 예술적 감각을 선보인 바 있는 푸치니는 〈투란도트〉에서는 고대 전설시대 중국에서 펼쳐진 가공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넘어 신비롭기까지 하다. 1945년 세계 최초의 호상 오페라 축제로 시작된 '브레겐츠 페스티벌' 70주년 기념작으로 선보인 〈투란도트〉는 2015년 브레겐츠 호수를 화려하게 수놓은 수작이다. 거대한 만리장성을 배경으로 인민복을 걸친 병마용과 같은 이미지의 엑스트라들이 무대 위를 가득 메운 이 공연에는 마린스키 극장의 주역인 플라다 쿠돌리가 카리스마 넘치는 투란도트를 열연하고, 테너 리카르도 마시가 칼라프를, 2008년 빈 벨레데레 콩쿠르 우승자인 중국계 출신 소프라노 구안룬 유가 류를 노래한다.



9.8 - 모차르트의 오페라 '후궁탈출'

중세에 터키 오스만 제국 탄생 이후 이슬람 문화의 유행이 되풀이되던 유럽, 그 여파로 황제 요제프 2세의 명을 받아 탄생한 모차르트의 오페라 〈후궁탈출〉. 그리스도교인 여자가 이슬람교의 하렘에 갇혀 유혹을 받다가 그리스도교 남성에게 구출되는 18~9세기에 유행했던 '탈출오페라'의 전형적인 테마를 담고 있다. 2015 영국 글라인드본 오페라 페스티벌의 수작으로 꼽히는 이번 공연은 모차르트 전문 소프라노와 테너로 인정받고 있는 샬리 매튜스와 에드 가라스 몬트비다스, 여기에 티치아티가 지휘를 맡아 경쾌하고 반쯤은 앙상블을 이루어낸다. 연출가 데이비드 맥 비커는 정수필의 연극적 분위기와 음악을 자연스럽게 조화시켰고, 비키 모터머의 무대는 마치 섬세하게 연출된 한 편의 유럽사극드라마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9.9 - 미셸 쇠베르크의 뮤지컬 '미스 사이공'

1985년 영국 신문에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된 뮤지컬 〈미스 사이공〉. 철저히 서양인의 시각에서 그려내어 지극히 오리엔탈리즘적이고 백인우월주의적인 시각이 담겨 있어 동양인이 보기에 유쾌하지 않은 면면들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세계 4대 뮤지컬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드라마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는 미셸 쇠베르크의 음악적 힘이다. 25주년 기념 특별공연으로 올린 이번 공연은 전 세계 수많은 뮤지컬 스타들이 지원했고, 그중 한국의 뮤지컬 배우 홍광호가 '투이' 역에 전격 캐스팅되어 화제를 모았다. 생동감을 살린 선명한 사운드와 아름다운 음악,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감정연기 그리고 배우의 숨결까지 담아내는 클로즈업 촬영으로 만들어진 영상은 관객들로 하여금 잊지 못할 감동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이동민**



사진제공 : 이강물 예술센터

스테이지149-연극선집1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탄탄한 구성,
명배우들의 호연,
절제된 연출 속에 빛나는 휴머니즘적 통찰

공연일시 : 2017년 6월 16일(금)~17일(토) 금 오후 2시, 8시 / 토 오후 3시

공연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관람연령 : 14세 이상

관람료 : 전석 2만원

예매문의 : 희관홈페이지(유료회원 032-420-2000), 엔티켓 1588-2341, 인터파크1544-1555

화려한 수상경력에 빛나는 2016 최고의 화제작!

제53회 동아연극상 작품상, 시각디자인상
2016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2016 올해의 공연 베스트 7
페스티벌 / 도표 2016 공식 초청작

제작진

작 & 연출 박근형	무대디자인 박상봉
조명디자인 김창기	영상 노효경
의상 배은창	소품 류혜성
분장 장경숙	음악 박민수
안무 최성호	조연출 이은준

출연 | 장연익 손진환 강지은 한윤춘 성노진 임진웅
서동갑 고수희 권태건 이원재 오순태 이호열
김국진 김병건 김경일 김동원 이기현 심재현
신사랑 안소영 나영범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6 제53회 동아연극상 작품상, 시각디자인상 수상은 물론 월간 『한국연극』 '2016 올해의 공연베스트' 선정, 한국연극평론가협회 '2016 올해의 연극베스트3' 선정 등 화려한 수상경력에 빛나는 2016년 최고의 화제작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2016년 3월 남산예술센터와 극단 골목길에 공동 제작하여 개막 당일부터 연일 매진사례 기록을 세우며, 연극계와 관객들의 추가공연 요청에 특별 공연을 추가하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운 작품이다.

그들의 가장 간절하고 소박한 외침, "저 살고 싶어요"

연극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는 2016년 대한민국 경남, 1945년 일본 오키나와, 2004년 이라크 팔루자, 2010년 한국 서해 백령도 등 서로 다른 시대와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 그 속에서 오늘날 젊은 탈영병과 일제 말기 일본 가미카제 특공대가 된 조선인, 이라크에서 납치된 평범한 선교사, 서해에서 선박 침몰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등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저 살고 싶어요." 각기 다른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역사적 사건들은 하나의 목소리로 외친다. 박근형 연출은 군대와 전쟁, 국가와 거대 담론 아래 가려졌던 이 외침을 과거 역사의 잔재로 기억

하기보다 현재를 살아가는 동력으로 삼고자 무대 위로 호출한다. 세상의 모든 군인의 모습, 반복되는 불행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모든 인간은 불쌍하다'라는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탄탄한 구성, 명배우들의 호연 그리고 절제된 연출 속에 빛나는 휴머니즘적 통찰로 묵직한 감동과 함께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다.

소시민의 일상과 아픔 다룬 한국 최고의 작가 겸 연출, 박근형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를 쓰고 연출한 박근형(54, 극단 골목길)은 1999년 <청춘예찬>으로 그해 연극계의 모든 상을 휩쓸며 평단과 관객에게 이름을 알렸고, <선착장에서>, <경숙이, 경숙아버지>, <너무 놀라지 마라> 등 작품들을 선보였다. 그의 작품들은 대체로 현시대 소시민의 일상과 아픔을 무겁지 않게 묘사해 관객들의 공감을 자아낸다. 박 연출은 "국가 간 거래, 전쟁, 시스템 속에서 자의 또는 타의적으로 강요받는 군인들의 죽음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서사 위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며, 죽음의 순간에 섬광처럼 스치는 기억에 공감하기를 바란다"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아트+아트**



클래식시리즈III

'바이에른 캄머 필하모니'

소치동계올림픽 폐막식을 빛낸 바이올린 여제 타티아나 사모일!
비루투오소 플루티스트 필립 운트 초청!
모차르트의 명곡을 들려줄 바이에른 캄머 필하모니 내한공연

공연일시 : 2017년 7월 8일(토) 오후 7시

공연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람료 : R 5만, S 3만, A 2만, B 1만

예매문의 :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유료회원 032)420-2000, 엔티켓 1588-2341, 인터파크 1544-1555

프로그래밍

모차르트 / 현을 위한 세레나데 13번 G장조, K.525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모차르트 / 바이올린 협주곡 3번 G장조, K.216

모차르트 / 플룻을 위한 론도 D장조, K.Anh.184

모차르트 / 교향곡 29번 A장조, K. 201

*프로그래밍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국내외 탁월한 연주 실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티스트를 초청하여 선보이는 인천문화예술회관의 '클래식시리즈' 세 번째 무대 <바이에른 캄머 필하모니>가 7월 8일 대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카메라타 로열 콘서트하바우>, <김선옥 피아노 리사이틀>에 이은 클래식시리즈3 - <바이에른 캄머 필하모니>는 모차르트 음악에 탁월한 해석으로 전 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단체이다. 이들과 함께 할 협연자도 눈길을 끈다.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비올라의 지장 '유리 바슈메트'와 같이 음악과 미술이 조화를 이루는 황홀한 무대를 선사했던 바이올린 여제 '타티아나 사모일'과 국내외와 해외에서 왕성히 활동 중인 플루티스트 '필립 운트'의 협연 그리고 독일의 떠오르는 젊은 지휘자 가보르 혼트바리가 '바이에른 캄머 필하모니'를 이끌며 모차르트의 명곡을 연주하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1990년 독일 바이에른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창단된 '바이에른 캄머 필하모니'는 최고 수준의 연주자들로 이루어진 실내악단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으로 1996년 유럽경제진흥협회로부터 '음악부문공로상'을 수상

하였고, BBC 뮤직 매거진 최우수상, 파리 'Diapason d'or', 독일 'ECHO Klassik' 등을 수상하며 연주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16/17시즌에는 아우크스부르크 음악대사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특히 문화의 도시, 아우크스부르크는 모차르트와 인연이 깊은 곳이다. 궁정음악가였던 모차르트 아버지가 태어난 곳이며, 모차르트가 '아버지의 도시'로 표현했을 만큼 유서 깊은 곳으로 모차르트가 연주회 및 여행 등의 목적으로 여러 차례 방문했던 도시이기 때문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모차르트의 명곡 모음 연주회라 할 정도로 그 구성이 특별하다. 모차르트 곡 뿐만 아니라, 모든 클래식 음악 작품에서 인기 면에서 늘 최상을 달리는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를 시작으로 '바이올린 협주곡 3번', '플룻을 위한 론도', '교향곡 29번'을 연주한다. 모차르트가 "아버지의 도시"라 칭한 아우크스부르크 음악 대사이자 모차르트 연주로 화려한 수상경력을 갖고 있는 '바이에른 캄머 필하모니'가 선사하는 그들의 탁월한 음악적 해석능력과 연주력이 관객들을 설레게 할 것이다. **아트인체**





스테이지149-창작뮤지컬 '왕세자 실종사건'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노래하다

공연일시 : 2017년 7월 14일(금) ~ 7월 15일(토) 금 오후 2시, 8시 / 토 오후 3시

공연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관람연령 : 12세 이상

관람료 : 전석 2만원

예매문의 :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유료회원 032)420-2000, 엔티켓 1588-2341, 인터파크 1544-1555

무대에서 이정도 단단하게 구성된 '미스터리 멜로물' 을 본 기억, 거의 없다.
- 중앙일보

100분 동안 팽팽한 긴장감으로 시계를 불 켜주자 주지 않던 질주가 멈추는 순간, 관객들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 매일경제

극 후반부 자숙이와의 관계를 의심받는 구동이 물리적으로 거세까지 하며 내시가 된 사연이 전개될 때, 객석 곳곳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잇따랐다.
- 경향신문

스타일리쉬한 연출, 속도감 달리는 배우들, 음악의 새 옷을 입고 다시 태어났다.
- 조용신 평론가

*일정 및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창작뮤지컬의 새로운 레퍼토리의 탄생, <왕세자 실종사건>

박진감 넘치는 미스터리한 극적 전개! 영화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듯한 플래쉬백 연출! 가슴을 울리는 절절한 넘버들! 배우들이 펼치는 환상의 연기 앙상블로 작품성과 대중성에서 골고루 찬사 받은 <왕세자 실종사건>.

제5회 '뮤지컬 어워즈' 에서 소극장 창작뮤지컬상을 수상, 제18회 '한국뮤지컬대상' 베스트창작뮤지컬상, 연출상, 극본상, 작곡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까지 6개 부문에 최다 노미네이트되는 영광을 얻었고 이중 최고 영예인 베스트창작뮤지컬상과 연출상을 수상하며 창작뮤지컬의 새로운 탄생을 알린 작품이다. <왕세자 실종사건>은 조선 시대 궁중을 배경으로 왕세자가 사라지면서 드러나는 궁궐 내 복잡한 관계에 집중한다. 특별한 무대 장치랄게 없는 텅 빈 무대에서 빛과 소리, 배우들의 움직임으로 공간을 넘나들며 이야기를 끌어가는 힘을 보여준다. 또한 '왕세자 실종사건' 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궁녀 자숙과 내시 구동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다시한번 관객들의 가슴을 뜨겁게 할지 기대해 본다.

관람 포인트 4M

MYSTERY 추리소설을 읽는 듯한 미스터리한 사건 전개
극 중 왕세자가 사라지기 전 몇 시간을 반복·추리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진실을 추리해나가는 과정에서 현재와 과거, 상상이 연결되며 자유롭게 시공간을 넘나든다.

MUSIC 극적 긴장감을 템포감 있는 다양한 음악으로 표현
음악은 설 새 없이 몰아치는 빠른 템포의 극적 전개과정을 40인조 오케스트라 사운드와 타악기를 활용한 다양한 리듬의 변주를 통해 조선 밤의 정취 있는 궁궐로 인도한다.

MOTION 영화필름을 거꾸로 돌린 듯한 플래쉬백 연출
등장인물들이 추리를 시작하는 순간, 배우들이 역모션으로 시간을 되돌려 등장인물의 머릿속에서 재구성된 현장 속으로 들어간다.

MINIMALISM 미니멀리즘에 입각한 감각적인 무대 디자인
배경과 소품을 이용해 제한된 공간을 설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배우들의 동선과 연기, 노래 그리고 조명을 이용하여 궁궐 내에 수많은 공간들을 만들어 낸다. **아트[터]**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백조의 호수'

공연장 속 은반 위에서 펼쳐지는
'동화 속 환상의 세계'
한 여름 온가족이 함께하는 공연장 바캉스!

공연일시 : 2017년 8월 22일(화) ~ 23일(수) 화 오후 2시, 8시 / 수 오후 8시

공연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연령 : 만5세 이상

관람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2만원

예매문의 :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유료회원 032)420-2000, 엔티켓 1588-2341, 인터파크 1544-1555

매 공연마다 매진 사례,
2017, 절대 놓쳐선 안될 공연 아이스발레 <백조의 호수>

여타 아이스 쇼와는 차별된 공연
클래식 발레와 피겨 스케이팅을 결합하여 오락성만 짚은 아이스 쇼와는
차별된 공연이다.
더구나 아이스링크가 아닌 극장무대에 얼음무대를 만든 것도 볼거리
- 중앙일보

도심 속으로 떠나는 문화 바캉스
산이나 바다로 가는 것만 피서가 아니다. 발상을 바꿔 '문화바캉스'
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그냥 놀고 즐기보다 인생에 남을 멋진 문화체험을 이번 여름 해보자.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 조선일보

*일정 및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보석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아이스발레단"

러시아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발레와 예술과 역동적인
피겨스케이팅을 완벽하게 조화시켜 전세계인들에게 감
동을 선사하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아이스발레단의
공연은 여타의 아이스 쇼와는 그 품격과 수준에서 차별
화되는 예술장르이다. 아이스발레는 발레의 정수를 은
반 위에서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뛰어난 예술성과 오락성
을 갖춘 21세기의 새로운 예술 장르로 각광 받고 있다.
1967년 고전 발레의 대가이자 '빙상 위의 여인'으로 추
앙 받던 콘스탄틴 보얀스키가 최고 수준의 발레리나와
피겨스케이터를 모아 창단한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아
이스발레단은 '크리스탈 궁전'이라는 첫 작품을 성공적
으로 공연함으로써 '아이스발레'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
척하였다. 1995년, 세계 최초로 미국과 캐나다의 정규
오페라 극장에 아이스링크를 설치하여 '잠자는 숲 속의
공주',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을 선보이며 관
객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는 상트 페테르
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은 2017년 차이코프스키 3대
발레중 하나인 '백조의 호수'를 새롭게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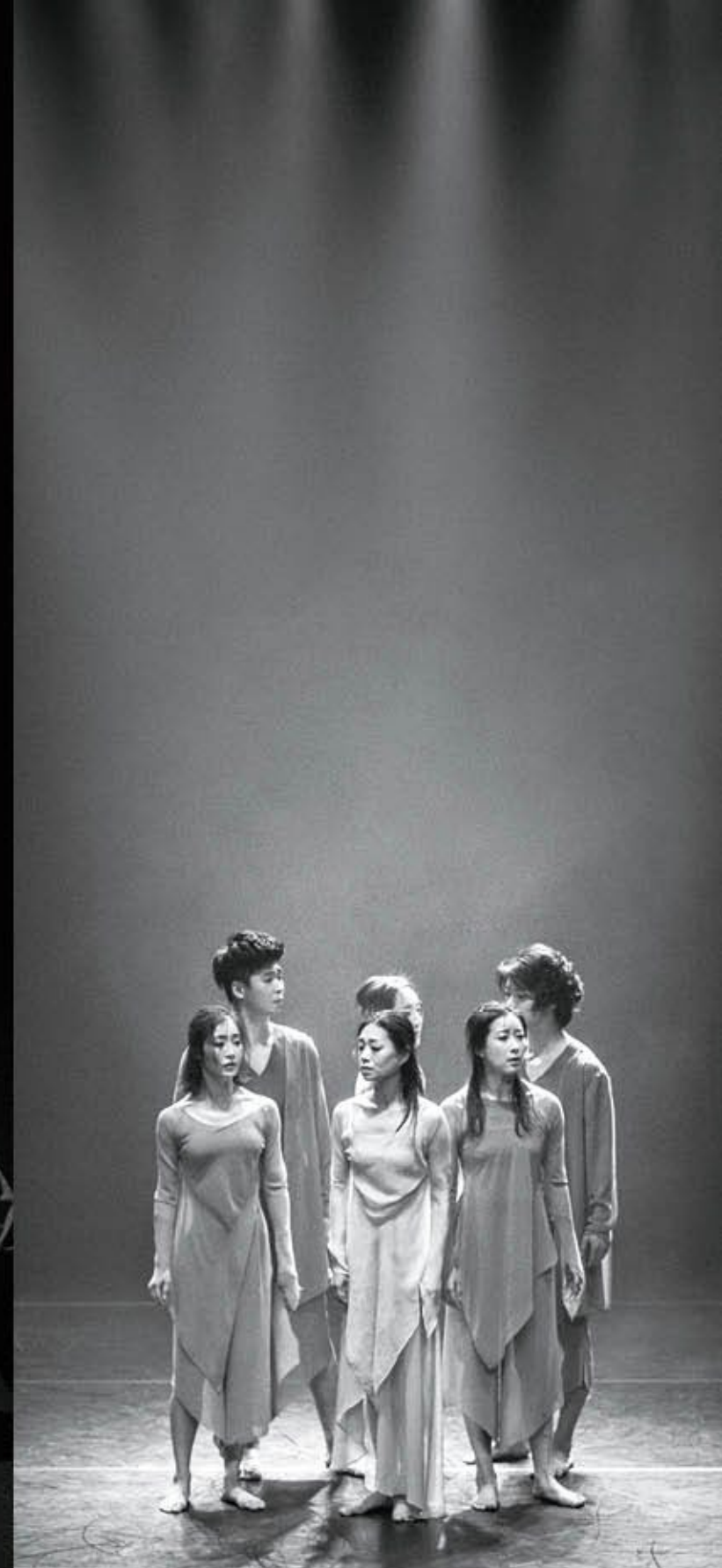
한 여름, 공연장이 아이스링크가 된다.

피겨 스케이팅의 여왕, 김연아 선수의 공연을 다수 진행
한 국내 최고의 아이스링크 제작팀 (쥬아이스 앤 스포츠
는 컴팩트한 이동식 냉동시스템과 최첨단 소재인 PE재
질의 소구경 아이스패널을 사용하여 친환경 예코 아이
스링크를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안에 설치해 환상적인
아이스발레를 위한 최고의 아이스링크를 제공한다. 극
장 외부의 고성능 냉동기로부터 급속 냉각된 부동액을
무대에 설치된 아이스패널로 전달하여, 아이스패널 위
에 뿌려진 물을 얼리는 과정을 거치는 특별 공법으로 공
연장의 일반 무대를 아이스링크로 탈바꿈한다.

아이스링크를 설치하는 과정은 4시간이 소요되며, 아이
스발레 공연을 위한 스케이팅에 필요한 5cm두께의 얼
음을 얼리기까지 20시간이 소요된다. 인터미션 동안 아
이스링크 정빙이 이루어지며, 아이스 무대는 공연 종료
후 6시간 안에 해체되어 다음 공연장으로 곧바로 이동
이 가능하다. **아이스링크**

시, 시가 내게 왔다







인천시립극단 '열하일기만보'를 보고 부활절에 만난 '감각만보'

글 조우선(본지 편집장)

“몸통이 하나 겨저 태어난 인간이 큰 세상을 만나고 깨달을 방도는 고작해야 그 몸통으로 감각하는 것 이외에 무엇이 있을까?”

4월 16일.

인천시립극단 '열하일기만보'의 마지막 공연이 있던 일요일이었다. 느지막이 일어나 부활절 예배에 참석이라도 해야지 하며 예전에 한 번 들른 적 있는 집 앞 교회를 들렀고, 부활절 기념예배가 진행되는 과정을 손님처럼 바라보았다. 예수의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스토리가 연극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가장 낮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 죽은 이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

TV나 인터넷 매체에선 가장 큰 이슈로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다루고 있었다. 어둡고 차가운 바다 저 깊은 곳에 3년이란 세월을 유령처럼 가라앉아 있던 그 배가 비로소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었다. 아직도 수습하지 못한 시신이 아홉 구가 있다. 무사히 물 밖으로, 가족의 품으로, 또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될지를, 그리고 진실도 함께 떠오르게 될지를 모두들 궁금해 하고 있었다.

차단과 소동이 공존하는 무대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건 오로지 벌판뿐인, 하늘과 땅이 한 일자로 짝 맞붙어버린 작은 마을. 연암의 기록에서처럼 모래바람이 거세었다는 열하(熱河). 푸석한 풀숲을 배경으로 먼지 가득 먹은 의상을 걸친 인물들, 더러는 모래바람을 막기 위한 보안경을 쓴 이들도 등장한다. 무대는 예상보다 간단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계단식으로 층을 이룬 무대엔 진조한 초원을 연상케 하는 마른 풀들이 열을 이룬다. 계급을 상징하는 상투적인 구조인 듯도 하고, 펼쳐진 초원을 입체적으로 배열하여 효과적인 무대구조를 이루려 한 듯도 하다. 가로놓인 풀들 사이에 칸마다 통일성 없이 작게 열어놓은 틈들은 배우들의 이동 통로를 제공하기도 하면서 계층 간의 사회적 소동 구조를 상징하는 듯도 했다. 소동이란 마음과 감정의 흐름이어서 아무리 차단하려 해도 물이 스스로 그 틈을 찾아 새어 흐르듯, 막혀있는 구조 사이의 틈을 기가 막

히게 찾아 새어나오고 또 흐른다. 이러한 이유로 계단식 무대의 차단된 구조는 그 작은 통로를 통해서나마 자유롭게 흐르도록 열어놓는 수밖에 없었으리라.

'미중'이란 말(馬)이 말(言)을 한다는 소문으로부터 마을의 소동은 시작되고 언뜻 봐도 어설피 보이는 마을사람들은 불길한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현자처럼 끊임없이 주절거리는 말과 이 괴이한 상황의 주인공인 말을 죽일 수도 추방할 수도 없었던 마을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취한 행동은 고작에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었다. 재갈은 과연 미중의 말(言)을 중단시켰을까? 검은 재갈(?)은 결코 우리의 표현을 막을 수 없음을 현실에서 보아 우리 역시 알고 있다. 마을의 법은 계단식으로 차단된 구조처럼 답답하게 막혀 있었지만, 상하가 꼭 막힌 구조는 그리 견고하지 못하다. 딱딱한 틈새로 균열이 생기기 마련이고 호흡과 소동이 이뤄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차단된 듯 보이는 계단식 구조 위를 누구보다 자유롭게, 물처럼 오르내리던 이는 연암이 된 말문 트인 미중이며, '표현'이었다.

위대한 감각의 세계

마을의 조상들이 남긴 어록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은 기이한 것이고, 기이한 것은 없는 것이기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하다.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586년이라는 초시간적인 세월이 흘러 갑자기 등장한 황제의 어사는 제국의 지도에 표기되지 않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황제가 만드는 제국의 지도는 황제의 권위처럼 오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제국의 작은 마을에 무감하게 살아가던 이들에게 생긴 균열은 하찮은 '감각'에서 시작된다. 말(馬)이 말(言)을 하게 된 건 콧잔등에서 시작

한 바로 그 가려움에서부터였다.

모든 변화는 감각으로부터 시작한다. 감각하는 세상은 물처럼 흐른다. 하지만 가지려 하는 자들은 그 물을 가두려고만 한다. 내 것으로 삼아야하기에 흘러서 떠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온갖 법과 제도로 독을 세우고 빈틈을 메워서 숨통까지 틀어막으려한다. 가두어진 우리들의 불쌍한 감각들은 기형적 몸짓과 기이한 말들을 마보처럼 늘어놓는다. 줄에 매어진 마리오네트 목각인형처럼 배우들은 단편적이고 무의미한 동작들을 반복할 뿐이다.

이때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이루라도 되는 듯 감각이 마을사람들을 뒤흔들어 놓는다. 콧잔등에서 시작된 가려움으로 말문이 트이자 말(馬)인 미중이 마주인 창대의 주인이 되고, 모든 감각이 죽어있던 초매의 눈과 귀가 트이자 보잘 것 없던 노파가 제국의 새로운 황제로 등극하고는 덩실덩실 춤을 춘다. '감각'은 '말(言)'을 낳고, 말은 '균열'을 가져오고, 균열의 결과 기존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위대한 감각의 세계가 다시금 열린 것이다.

배우들의 은밀한 파격

무대 위 배우들은 미중(馬)이 그랬던 것처럼 콧잔등을 찡긋긋하며 가려움을 호소하는 듯 보였다. 이들은 말문이 트인 것이라기보다는 표정과 몸짓을 통해 새로운 언어를 구사하고 있었다. 내가 알고 있던 배우들이 맞나? 이들은 배우로서 기존의 정체감을 벗어 던지고 있었다. 무엇이였을까. 이번 작품에서 유독 드러난 배우들의 변화가 궁금해졌다. 무대 밖에서 만난 배우들은 동작을 따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했다. 역할에 걸맞은 사람이나 사물들까지도 관찰하고 관찰한 것들을 대사보다 먼저 몸에 익히는 익숙하지 않은 과정을 겪었다고 했다. 마치 왼손과 오른손이 동시에 다른 도형을 그리





는 것처럼 개연성 없는 대사와 몸짓의 불균형한 결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고통이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어쩌면 변화는 익숙한 균형감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시작되었는지 모른다. 굳게 믿었던 상호 개연성으로부터 탈피할 때야 비로소 새로운 해석의 토대가 마련 될 것이다.

대사와 전혀 개연성이 없는 생경한 움직임보다 배우들이 발굴한 몸짓의 발원지를 발견하고는 몹시 유쾌 해지기도 했다. 버스나 전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할머니들의 과장된 손짓과 구부정 노인의 절뚝거림을 보았 을 뿐 아니라 의외로 절묘하게 삽입된 '최순실'과 '포켓몬고'를 발견했을 때 객석 한 귀퉁이에서 '크크'하 고 몰래 웃었다. 은밀한 파격을 발견하고 유쾌해지는 관객만큼이나 긴장감을 덜어낸 배우들의 자유로움이 한껏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일야구도하(一夜九渡河)

장마로 물이 불은 요하(遼河). <열하일기>에서 연암은 청나라 황제 건륭을 만나기 위한 다급한 여정으로 하룻 밤 사이에 아홉 개의 강을 건너던 중 깨달음을 얻는다. 사람들은 이 강을 밤에는 건너지 않는다고 했다. 낮에

는 넓게 펼쳐진 평야 덕분에 들리지 않던 강물소리가 밤 에는 전쟁 중 전차 만대가 굴러가는 것처럼 위협적인 소 리를 쏟아내기 때문이다. 연암은 한치 앞을 볼 수없는 어둠속에서 우리 같은 강물소리의 공포를 극복하는 과 정을 통해 외부조건에 의존하는 불완전한 감각을 이야 기했다.

연극 '열하일기만보'에서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동체의 규정에 맞게 살아가고 그들의 감각마저 제한하 고 있었다. 관습에 간혀 제한된 감각은 죽은 감각이다.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운 감각만이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갖는다. 생명력을 가진 것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에 살아있는 감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죽어있 던 감각이 다시 살아난 초매가 제국의 황제로 등극한 것 이 아닐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날, 내가 발견한 부활은 '감각' 이 었다. 연암이 어둔 밤 아홉 개의 강을 건너서 깨달은 감 각의 실체처럼, 세월호와 함께 깊은 물속에 잠겨있던 아 홉 구의 시신이 물으로 떠올라 의구심의 실체와 진실을 알게 하여, 내 몸처럼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길 기도해본다. **이동민**

INCHEON PHILHARMONIC ORCHESTRA
2017 SUMMER SEASON

그리고,
푸르른 날에
IPO 2017 SUMMER SEASON

2017.06.23 -
2017.08.11

인천시립교향악단

그리고, 푸르른 날에

제364회 정기연주회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5번

2017. 6. 23(금)
오후 7시 30분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365회 정기연주회 엘가 교향곡 제1번

2017. 7. 14(금)
오후 7시 30분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2회 차세대 지휘자 데뷔 콘서트 베토벤 교향곡 제1번

2017. 8. 11(금)
오후 5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인천문화예술회관
인천시립교향악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49 (구월동 1408)

공연문의
032.438.7772
032.420.2781

예매문의
art.incheon.go.kr / 032.420.2000
www.enticket.com / 1588.2341

바르샤바 (Warszawa)에서...

글 박정제 (폴란드 통신원) 사진제공 김지수

최근 들어 국내에서 폴란드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쇼팽콩쿠르 우승 이후 이러한 관심이 더욱 크게 이어져 지난해에는 서울-바르샤바 간 직항노선이 개설되기도 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독자들이 폴란드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을까 고민했다. 사실, 바르샤바를 비롯해 폴란드의 여러 도시에서는 문화예술의 각 분야에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리고 있으므로 그 중 한 공연예술축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소개할 계획이었으나, 보다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편이 폴란드 여행을 계획 중이거나, 미지의 예술에 호기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있어 오히려 적합하고 유익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현지에서 공연예술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폴란드의 대표적 공연장과 그 외 주요 문화예술 관련시설을 각 도시별로 정리해보았다. 한정된 지면상 개별 공연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누락되어 안타깝지만, 본 글이 관심을 갖은 독자에게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써 응용되거나 혹은 폴란드의 전반적인 공연예술 현황을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있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본다.

폴란드 경제발전과 문화예술계 변화

본격적인 문화예술 관련시설 소개에 앞서 폴란드의 경제 발전 및 문화예술계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자. 문화예술분야의 발전 및 융성은 국가의 정치·경제·사회 전반과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는 실제 문화예술분야를 보다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데에 있어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 특히 소위 순수예술로 분류되는 비영리 혹은 저수익성 문화예술 산업 및 분야에



문화과학궁전 전경

있어 국가정부기관의 운영보조지원이 필수적이고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인지할 때 국가경제 변화 추이의 관찰은 해당분야의 이해를 위해 매우 유의미하다.

폴란드는 현재 유럽 국가들 중 경제적으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2005년~2015년 GDP의 경우 폴란드의 성장률은 연평균 3.9%로 EU회원국 평균인 0.9%의 4배 이상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개 EU회원국이 마이너스 성장(-4.4%)으로 침울하고 있을 때 폴란드만 2.8% 성장하는 저력을 과시하였다. IMF, EU집행위 등 주요 경제기관은 미세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지만, 2017년 역시 폴란드 경제가 3%대의 안정적 경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발전과 더불어 EU자금이 폴란드로 유입되면서 문화예술계의 변화 또한 상당하다. 새로운 공연장과 미술관들이 개관하였고, 오래된 문화예술시설 보수가 시작되었다. 이에 더해 도시개발정책을 발표하고, 폐허가 된 공공시설물을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재개발하고 있다. 바르샤바를 비롯해 크라쿠프(Kraków), 브로츠와프(Wrocław), 포즈난(Poznań), 카토비체(Katowice), 루블린(Lublin) 그리고 우치(Łódź) 등의 도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현재 각 도시의 대표문화예술시설 중 본 글에서는 공연장 및 관련기관·시설 등을 위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도시별 대표 문화예술시설

바르샤바는 폴란드의 수도로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대표적인 문화예술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다수의 공연장들이 들어서 있으며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공연장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전통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는 국립극장(Teatr Narodowy), 오페라와 발레 공연장인 국립오페라극장(Teatr Wielki Opera Narodowa) 그리고 바르샤바심포니오케스트라(Filharmonia Narodowa)은 바르샤바를 넘어 폴란드를 대표하는 공연장들이다. 위 공연장들과는 다소 다른 성격을 지닌 공연장들로 TR바르샤바(TR Warszawa), 노비씨어터(Teatr Nowy), 스튜디오씨어터갤러리(STUDIO Teatrgaleria) 그리고 IMKA씨어터(Teatr IMKA) 등이 있으며, 이러한 공연장들에서는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제작하는 한편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폴란드 제2의 도시인 크라쿠프는 폴란드의 문화수도로 불리고 있으며,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는 현재의 수도인 바르샤바보다 보다 깊은 전통을 지니고 있다. 실제 폴란드 내 문화예술계를 움직이고 있는 주요인물들은 크라쿠프 출신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도시에서 학업을 마치고 문화예술계에 진입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공연장으로는 현재 안 클라타가 예술감독으로 재직하고 있는 스타리씨어터(Stary Teatr)를 비롯해 라즈니아노씨어터(Teatr Łaznia Nowa), 루도비씨어터(Teatr Ludowy) 등이 있다. 문화기관으로서 1997년에 개관한 크라쿠프페스티벌사무소(Krakowskie Biuro Festiwalowe)가 대표적이다. 2000년 유럽문화도시로 선정된 크라쿠프시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후 도시내에서 펼쳐지는 페스티벌들과 공동기획 혹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페스티벌로는 크라쿠프영화음악페스티벌, 국제독립영화제, Rara오페라 그리고 폴란드 최대 연극축제인 보스카코메디아(Boska Komedia)가 있다. 그 외, 근래 5~6년 사이 낡은 도시 이미지를 벗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 설립된 현대미술관 모작(MOCAK)과 현대 순수예술공연을 선보이는 MOS,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대형공연을 위한 ICE콩그레스센터(Centrum Kongresowe ICE Kraków) 등도 반드시 눈여겨보아야 할 문화예술시설이다.

폴란드 제3의 도시라고 불리며 다국적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산업도시 브로츠와프도 주목할 만하다. 브로츠와프는 바르샤바와 크라쿠프를 뒤로하고 2016년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되었다. 문화적 역사와 가치 및 향후 행사 기획, 도시 기반시설과 재정적 지원 능력, 그와 더불어 도시의 사회경제학적 발전 및 그 파급효과까지 고려한 EU 선정기준에 부합했던 것이다. 이 도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시설로는 클래식 음악 전용공연장인 NFM(Narodowe Forum Muzyki)과 전위적인 멀티미디어 아트를 선보이고 있는 WRO아트센터(Centrum Sztuki WRO)를 들 수 있다. NFM은 클래식 공연에 최적화된 공연장으로써 특화된 기술인 박스 인 박스(box in a box)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NFM심포니오케스트라를 비롯한 11개의 클래식음악단체들이 상주하고 있다. WRO아트센터의 대표적인 행사는 WRO비엔날레(WRO Biennale)로 뉴 미디어 아티스트들을 선별하고 그들의 작



올드타운

품을 전시하는 폴란드 내 가장 큰 미술행사 중 하나이다. 2017년 올해 17회째를 맞고 있으며 이병진, 최지원 등의 한국 작가가 참여한다. 5월 17일에서 21일까지 오프닝 행사가 있으며, 전시는 7월까지 이어진다.

이 외 주목할 만한 도시로는 포즈난, 루블린 그리고 우치가 있다. 인구 57만의 소도시인 포즈난에는 연간 300회 이상의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ZAMEK센터(Centrum Kultury ZAMEK)와 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폴란드 최고의 무용단인 PDT(Polski Teatr Tańca)가 상주하고 있다. 루블린에는 루블린 컬처센터(Centrum Kultury w Lublinie)와 오페라를 비롯한 대·소형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컬처 미팅센터(Centrum Spotkania Kultur)가 있으며, 폴란드 내 주요 문화예술축제 중 하나인 다원예술축제 컨프론테이션페스티벌(Festiwal Konfrontacje Teatralne)이 열린다. 카토비체에는 폴란드국립라디오심포니오케스트라 콘서트홀(Narodowa Orkiestra Symfoniczna Polskiego Radia, NOSPR)이 2014년 개관하였으며 2017년 10월에는 월드뮤직마켓인 위맥스(WOMEX) 개최에 예정되어 있다. 우치에는 최근 비어있는 공장들을 개활한 복합쇼룸 마뉴팩투라(Manufaktura)가 들어섰으며, 화력발전소를 문화공간으로 개조한 EC1 등 도시재생개발 사업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눈여겨 볼 점은 문화예술 관련기관 및 시설물들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기반의 문화예술 콘텐츠의 경우에도 그 수준 및 규모에 있어 수도권 바르샤바와 견주어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문화과학궁전

에필로그

폴란드는 문화강국이다. 경제발전, 문화예술시설 확충, 도시개발정책과 같은 가시적 단면에 굳이 집중하지 않더라도 문화와 예술을 대하는 폴란드인들의 태도에서 이러한 결론을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 폴란드인들의 자국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과 우월적 의식은 주변 강국의 화려함 앞에 결코 위축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음악분야에서는 프리데리크 쇼팽(Fryderyk Chopin)을 위시하여 카롤 시마노프스키(Karol Szymanowski), 헨리크 비에니아프스키(Henryk Wieniawski), 헨리크 고레츠키(Henryk Gorecki), 현대의 크쉬스토프 펜데레츠키(Krzysztof Penderecki) 등 세계음악사에 이름을 올린 수많은 음악가들을 배출하였으며, 문학 분야에서는 한국에서도 최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시인 비스와바 씬보르스카(Wisława Szymborska)를 비롯하여 무려 4명의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치·역사적으로 특별한 위치를 지니고 있는 연극분야에서도 유능한 연출가들이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고, 영화애호가들에게 있어 폴란드는 그 자체만으로 설레는 전설적 대가들의 모국이다.

폴란드의 문화예술에 애정을 가진 한 개인으로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폴란드에 대한 관심이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앞으로 2년 뒤에는 한국-폴란드 간 수교30주년을 앞두고 있다. 역사적으로 유사한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님은 두 국가가 문화와 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다양한 교류가 더욱 크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도현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재원 마련과 더불어 공공성과 자율성 확보에 힘써야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 사태로 본 문화·예술의 현실

글 강창대

시절마다 유행하는 말이 있다. 그 말이 곧 사회의 시대적 특징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융합’이 있다. 융합은 디자인과 기술, 인문,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필요로 하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영역에서 주로 통용된다. 사회 각계로 번졌다. 융합은 기존의 것을 조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비슷한 맥락인 ‘창의’라는 말을 대체해 나갔다. 지금은 ‘융합’이라는 말이 뜸해지면서 ‘4차산업혁명’이라는 말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말들은 주로 다가오는 변화

를 포착하기 위해 사용된다. 물론, 그 말에 현재의 쟁점이 반영돼 있겠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향해 투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비어있는 것에 가깝다. 그래서 이 기표들은 상상과 창의로 채워져 나갈 수밖에 없다. 미래를 만들기 위한 창조적 활동의 근간에 문화와 예술이 차지하는 범위가 자못 작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문화·예술을 통해 과거에서 비롯된 오늘의 우리를 자각하고, 이를 토대로 변화를 모색하며 미래를 창조해 나간다. 이러한 활동은 창발(創發)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기존의 구조 속에 포섭되지 않으며 예측이 어렵다. 무엇보다도 창조는

낯은 물에 저항하거나 반항하며 이를 깨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그리고 규칙과 질서에서 벗어남으로써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낼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화·예술 분야 특히, 순수 창작 영역은 사회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미래의 동력, 문화·예술

그러나 문화·예술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시장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된 교환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수요는 늘 있지만 이를 공급하기 위한 활동에 생기를 불어넣을 만큼 충분한 비용이 교환되지 못한다. 특히, 산업의 영역에 포섭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창작활동은 시장을 만들지 못한다.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의 유지와 발전은 시장의 역할만으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문화·예술 부문을 사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문화예술진흥법」이다. 이 법은 16조(기금의 설치 등)에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는 그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1972년 이 제도가 마련되고 조성되기 시작한 기금은 2004년 5천 27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진금) 조성 방식이 문제가 됐다. 문진금은 공연장이나 미술관, 고궁 등의 입장료

가운데 일정한 비율(2~6.5%)을 모금하는 준조세 방식으로 조성됐다. 그러나 이러한 모금 방식에 위한 논란이 일었고 2002년부터 폐지됐다. 모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문진금은 4.7~8.6%의 감소율을 보이며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2010년부터 두 자리수 감소율을 보이며 급감하기 시작, 작년 문진금의 잔액은 813억만을 남긴 상태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문진금은 2018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¹⁾

문진금 재원 마련의 요원한 길

문진금의 모금 방식이 문제가 된 이상 기금의 고갈은 명약관화했다.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금리변동에 따라 기금의 이자수익조차 줄어드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대책 마련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태는 문화·예술에 대한 우리 사회 일반의 시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문진금 고갈의 문제는 크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문화·예술을 하나의 산업 즉, 돈벌이로 보는 시각을 꼽을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관점에 자리잡게 된 시점은 김대중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외환위기와 함께 시작된 IMF 체제 아래에서 문화행정의 기본틀이 국가주도에서 시장형 구조로 변화돼 갔다. 이때부터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경제적 부가가치가 부각되면서

〈문예진흥기금 연도별 적립금 및 지출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적립금	지출금(소진금)	잔액
2004	505,825	21,430(흑자)	527,255
2005	527,255	34,341	492,914
2006	492,914	38,127	454,787
2007	454,787	21,174	433,613
2008	433,613	24,532	409,081
2009	409,081	35,144	373,937
2010	373,937	75,139	298,798
2011	298,798	35,726	263,072
2012	263,072	10,825	252,247
2013	252,247	12,743	239,504
2014	239,504	84,612	154,892
2015	154,892	63,092	91,800

표1: 문진금 연도별 적립금 및 지출금 현황(출처: 도출한 의정실)

문화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는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이 널리 확산됐다. 이러한 기조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어졌다. 이에 더해 노무현 정부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정부보다 민간의 참여를 권장하면서 '민간자율성'을 강화해나갔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는 것으로 이어졌고, 이곳에서 관리하고 집행해 왔던 문진금을 국고 출연보다는 민간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가 뒤를 이었다.

국민 및 참여정부가 문화·예술 정책에서 민간의 참여와 자율성을 강화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문화·예술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으로써 문화산업의 측면만 강조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정부의 역할이 축소된 만큼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적 지원 역시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구축된 문화·예술계의 민관 거버넌스는 이명박 정부에 들어 뼈저리게 시작됐다. 여러 문화·예술 단체나 기관의 인사를 놓고 마찰이 빚어졌다. 저소득층의 복지 차원에서 마련된 문화바우처 사업 등이 이명박 정부의 실적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대체로 민관의 소동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평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진금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 마련은 눈길을 끌지 못했다. 오히려 문진금의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의 뒤를 이어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구현"이라는 기치와 '문화재정 2%'라는 공약을 내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다. 경제민주화와 다양한 복지의 확대 등 획기적인 공약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 역시 오래 가지 않았다. 많은 공약이 파기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문화·예술 부문의 정책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권초기부터 박근혜 정부의 '문화재정 2%' 정책은 재정 범위의 모호함과 현실성의 부족으로 비난을 받았다.

더구나 문진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경고가 나오는 상황에서 문진금의 지출을 대폭 증액하기까지 했다. 지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예술창작 지원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일회성 지원에 그친 사업이 많다. 그리고 문진금의 기

본적인 목적은 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성격에 맞지 않는 국책성 문화사업에까지 문진금을 지출했다. 아리랑세계화 등이 이런 사업에 속한다. 또, 주로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는 문화 인프라 사업의 부담마저 문진금에 떠넘기기도 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고민

현재 문진금의 주요 재원은 복권기금이다. 정부는 복권기금의 출연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까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복권기금 사용은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사업'에 한정돼 있었지만, 이를 예술창작 지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외에 관광개발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일정 부분을 출연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역시 검토중이라고 한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관광·체육기금은 문화·예술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작년과 올해 모두 2천억원의 문예기금을 출연했다고 한다. 정부는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다. 이외에 방송통신발전기금도 문진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예산에서 문진금을 직접 출연받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이 경우 문화·예술 활동이 정부의 눈치를 보는 등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문화·예술 활동은 자율성의 보장에 따라 그 생명력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문진금 재원의 출처에 문화·예술계가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는 문진금의 지역협력형사업을 지역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기획재정부 방안에 대한 반발에서도 잘 드러났다. 이 방안은 문화·예술의 지방 분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 문화재단 및 문화·예술계 전문가들은 예산 투입에 따른 즉각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의 예술 창작활동이 지역축제나 행사성 사업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했다.

대통령의 궐위(黜位)로 치러진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았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성 강화와 생활문화의 확대에 문화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블랙리스트' 사건 등 이전 정부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문재인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문화·예술 정책에서 고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즉,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무너진 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덧붙여, 문재인 정부는 문진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힘쓰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국고 출연을 늘리는 것과 함께 체육, 관광기금을 전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각종 기금이 중앙 문진금 조성에 이용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는 지역 문화계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기금들의 재원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지역의 문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각종 기금에 지역계정을 설정한다는 제안이 있어왔다.

이렇듯, 재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 못지 않게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문진금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문진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권력으로부터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공공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는 별도의 예산구조를 만들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전문가들에 의한 민간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를 만든 것은, 문화예술지원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직접적인 동치구조로부터의 자율성에서 나온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창조적 활동이 보장될 때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창조적 활동은 예측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정부와 공공 일반이 이러한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물론, 그 자율성은 지역자치와 분권이 전제될 때 커질 수 있다.

이동민



공간의 울림으로 듣는 아날로그 문화공간 콘서트홀 ‘엘림아트센터’

글 김본경 사진 유창호



홀 전체가 목재로 마감되어 있어 마치 악기의 내부에 들어와 있는 듯하다. 연주가 시작되자 피아노 소리에서 바리톤의 목직한 육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음악을 거대한 울림통 안에서 피부로 감상한다는 것을 실감한다. 3백만 인구를 돌파한 인천에 아직 클래식 전용 콘서트 홀이 없다는 것은 클래식 연주자는 물론이고 애호가들에게도 항상 아쉬운 부분이었다. 작년 12월, 인천에 이러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개관했다. 음악에 대한 애정으로 마련된 공간, ‘엘림아트센터’를 둘러보았다.

공간, 소리의 가치를 공유하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자리하고 있는 ‘엘림아트센터’는 지하 3층과 지상 8층짜리 건물 ‘엘림존’의 6층~7층을 사용한다. 엘림아트센터는 300석의 엘림홀, 130석의 챔버홀, 30석의 하우스홀과 4개의 오디오 갤러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의 목적은 단 하나, 문턱 없는 아날로그 음악의 공유다.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밸브 제조회사를 운영하던 이현진 대표는 회사를 영국회사에 매각했다. 은퇴 후 이 대표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젊은 시절을 보낸 지

◀ 엘림홀

▼ 진공관 오디오 시스템으로 음악감상이 가능한 홀



금 아버지들의 역할이 점점 작아지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은퇴한 자신도 아버지들의 상실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음악을 통해 즐거움과 감동을 경험했던 그는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 가족 공동체 화합을 이룰 수 있으리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음악은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진공관 앰프와 빈티지 스피커를 공개해서 음악으로 공감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음악 감상실을 제정했다. 그러나 좋은 소리의 가치를 너무 잘 아는 이 대표는 오디오 갤러리와 더불어 마이크와 스피커 없는 공연장으로 계획을 확장, 클래식 연주를 생생한 현장음으로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엘림아트센터’를 개관하게 되었다.

살아있는 날 것의 아날로그 음색

엘림아트센터 6층에 있는 ‘엘림홀’은 개인이 운영하는 인천의 첫 번째 콘서트홀로 클래식 공연의 최적화된 공간이다. 다양한 음악을 접한 이현진 대표의 경험을 바탕으로 뮤지션과 관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공간 안에 살뜰히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음색, 어쿠스틱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100% 아날로그 음악을 연주하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요, 순수 공연을 위한 홀을 만들기 위해서 첫째로 연주자, 뮤지션의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음악가들에게 훌륭한 공연 공간은 좋은 음악을 만들게 하고 이로 인해 관객은 수준 높은 음악을 감상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악가의 만족은 관객의 만족으로 이어지고 관객의 만족은 다시 음악가의 만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음악은 돌아오는 것이라고 이 대표는 말한다.

엘림홀은 다목적 공연장이 아니다. 클래식연주를 위한 공간으로 스피커가 아닌 공간의 울림으로 소리를 감상하는 공간이다. 이 대표는 이를 고려해 공간의 가로, 세로 높이를 신중하게 고민했다. 객석의 수를 300석으로 고집한 이유도 공간이 커질수록 발생하는 음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엘림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감동은 파이프오르간 연주다. 울림의 최적화된 공간에서 2,480여개의 파이프가 바람을 통해 만들어내는 소리는 아날로그의 최고 음색을 맛보게 한다. 이 대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악기 연주를 누구나 언제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점이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한 이유라고 말한다. 엘림홀에서 듣는 파이프 오르간 연주는 진정한 어쿠스틱 사운드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



오디오갤러리, 다양한 주제를 공유하다

엘림아트센터 7층에는 4개의 오디오 갤러리 방이 있다. 각종 오디오와 진공관 앰프는 좋은 소리의 음악을 듣고 싶은 이 대표가 10여년의 시간동안 수집한 것들이다. 처음 음악 감상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했던 방의 모습이기도 하다. 4개의 방에는 1930년대 주로 미국의 극장 등에서 사용했던 ‘웨스턴 일렉트릭(Western Electric)’ 알텍(ALTEC), 제이비엘(JBL)의 하츠필드(Hatsfield), 영국의 탄노이(Tannoy), 독일 자이스 이콘(Zeiss Ikon)의 이코복스(IKOVOK) 등 여러 종류의 진공 램프와 빈티지 스피커들로 각각 채워졌다. 모든 소리가 디지털화 된 시대에 빈티지 스피커에서 울리는 아날로그한 깊은 음색을 감상하는 감동과 더불어 호수공원을 향해 확 트인 전망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오디오 갤러리에서는 마스터 클래스를 비롯해 다양한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간단한 음료나 식사를 주문할 수 있다. 품격 있는 음악과 함께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면 엘림아트센터 오디오 갤러리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엘림아트센터는 특별한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간이며 생활 속의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바쁜 일상 속 오아시스같은 공간, 엘림아트센터에서 음악과 함께 우리의 특권을 누리보자. **이장민**

인천문화예술회관
2017 클래식시리즈3

bayerische kammerphilharmonie

바이올린 어제 타티아나 사모일!
비르투오소 플루티스트 필립 운트!

모차르트의 명곡을 선사할 바이에른 캄머 필!

바이에른 캄머 필하모니

지휘 가보르 혼트바리, 바이올린 타티아나 사모일, 플루트 필립 운트

프로그램 | 모차르트 세레나데 13번 G장조 K.525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바이올린 협주곡 3번, 플루트를 위한 론도 D장조 K.184, 교향곡 29번

* 프로그램 및 출연진 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17. 7. 8(SAT) 7PM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주최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예술회관 후원 인천문화예술회관 후원 R 5만원 S 3만원 A 2만원 B 1만원 관람연령 8세 이상 (유아는 부모 동반 필수)

예매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032)420-2000(회원전용) | 엔티켓 1588-2341 | 인터파크 1544-1555

NEWS



▲ 야외상설공연 <황금토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표 야외상설공연 <황금토끼> 보러 오세요!

인천문화예술회관의 대표 야외상설공연 <황금토끼>가 더욱 풍성해진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황금 같은 금요일, 토요일 끼 있는 무대'의 줄임말인 <황금토끼>는 즐거운 공연 관람으로 여유롭게 주말을 시작하고 싶은 모든 이들을 위한 열린 무대이다.

야외상설공연이 생소했던 1995년에 시작해 올해로 23년째를 맞이하는 <황금토끼>는 인천문화예술회관의 대표적인 장수프로그램이다. 다양성과 친근감을 모토로 작년에는 총 28회 공연으로 약 10,470여명이 관람하는 등 고정 관객층을 확보한 인천의 야외상설무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4월 28일(금)부터 시작해 9월 30일(토)까지(총 31회)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30분, 저녁노을이 예쁘게 물드는 야외공연장에서 다채롭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발길과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아직 극장 출입이 어려운 유아를 동행한 가족들부터 공연문화 자체가 생소한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관객들을 아우르며 문턱을 낮추었다.

금요일 저녁에는 4개 인천시립예술단과 민간단체에서 준비한 공연이 관객들을 기다리며 토요일 저녁에는 가족뮤지컬, 클래식, 국악, 성악 등 친숙한 장르부터 흥미로운 댄스, 대중콘서트 공연으로 매주 무겁지 않은 다른 테마의 공연이 관객에게 품격 있는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한다. 복장과 형식, 관람료에 구애받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뜨거운 감동과 열정적인 무대를 만끽할 수 있는 야외예술마당 <황금토끼>는 올해도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감동적인 무대로 새로운 감동을 줄 것이다.



▲ 인천시립무용단 윤성주 예술감독 선임

인천시립무용단 윤성주 예술감독 선임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인천시립무용단 신임 예술감독에 윤성주(61세)씨를 선임했다. 신임 윤성주 예술감독은 한국무용계에서 확고하게 자리잡은 안무가이자 교육자로서 이화여대 무용과에서 학·석사를 마친 후 세종대에서 박사를 수료했다. 윤성주 예술감독은 무용가로서 전황, 최현, 송범, 이태방 등 원로들을 사사, 전통무용의 기본기가 탄탄한 춤꾼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춤 실력 뿐 아니라 행정적 능력도 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립무용단 예술감독으로 부임하여 <그대 논개여>, <산들의 만찬>, <토너먼트> 등을 안무했으며, 특히 작품 <목향>으로 홍콩국제페스티벌, 일본 NHK, 프랑스 라옹페스티벌에 초청되는 등 세계 속에 우리의 춤을 각인시키며 찬사를 받았다. 최근에는 외국 안무가와의 협업으로 화제가 된 작품 <회오리>를 통해 한국 창작춤의 영역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미 우리 춤계의 중견 무용가이자 예술단체의 리더로 손꼽히는 윤성주 예술감독은 '모든 문화는 인천으로 통한다'는 슬로건 아래 지역 춤 문화의 중심에 서며 인천무용계 뿐 아니라 세계 시장을 겨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기시계공 인천시립무용단)



▲ 커피콘서트

커피콘서트 하반기 시즌권 티켓 오픈

인천문화예술회관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커피콘서트가 올해 하반기(오는 8월~12월)에 열리는 공연의 시즌권을 판매한다. 시즌권은 오는 6월 26일(월)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총 50석의 한정된 좌석을 판매할 예정이다.

가장 좋은 좌석을 정상가 대비 총 2만원 할인된 가격(5만5000원=1만1000원X5회)으로 만나 볼 수 있는데다 대회 예매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때문에 커피콘서트 마니아들에겐 놓치기 아까운 기회이다. 시즌권 신청은 전화(032-420-2739)로만 가능하다.

8월, 국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국악재즈그룹 블랙스트링. 9월, 감미로운 목소리의 소유자 상어 송 라이터 한동준. 10월, 국내외 실력과 젊은 양상을 솔리 판 투티의 스페인의 향기 가득한 무대. 11월, 이승화×이향하 판소리 '여보세요'. 12월, 최고의 연주실력으로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윤석철 트리오의 '재즈인 듯 재즈 아닌, 재즈의 진화'가 준비되어 있다.



▲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예술회관 유희공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다

인천문화예술회관 전시공간 내 기존의 유희공간이 친시민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총 면적 240.84㎡로 이곳에는 테이크아웃 형태의 소규모 카페와 예술회관 상설예매처가 들어서며 예술교육프로그램, 소규모 공연, 영상상영 등을 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 다소 답답하고 어두웠던 유리 벽면은 폴딩도어로 바뀌 확 트인 전망과 개방감을 주었으며 입구도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곳으로 위치를 바꾸었다.

앞으로 인천문화예술회관은 복합문화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공연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술회관 관계자는 금번 복합문화공간 개조공사를 통해 "인천문화예술회관에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에게 여유와 힐링, 그리고 즐거움을 선사해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인천시립예술단 노조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관람티켓 나눔행사 참여

인천시립예술단 노동조합(지부장 최진욱)이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총 23일간 열리는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대회를 맞아 인천에 사는 소외계층에게 경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관람티켓 나눔행사에 동참한다. 관람티켓 나눔행사는 인천시(체육진흥과)가 추진하는 입장권 판매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성인(만 16세 이상) 기준 15,000원인 입장권을 30% 할인하여 10,500원에 구매하되, 구매한 당사자가 아닌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해 선정된 소외계층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인천시립예술단 노동조합에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인천시민들과 다양한 사업을 함께 하고, 특히 문화적으로 소외된 시민들에게 예술의 감동과 행복을 나누는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으로 한 발 더 다가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천문화예술회관(관장 심우식)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인천시민을 위한 새롭고 다채로운 교육사업 등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시계공 예술단운영팀)

※일정 및 프로그램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06 06



06 10



06 16



06 17



06 18



06 21



06 23



06 26

6월 Performance June

06 02 2017학년도 인천예술고등학교 제20회 무용과 정기공연
2017. 6. 2 / 오후 7시 / 초대 / 대공연장 / 032-433-3142 / 인천예술고등학교 무용과

06 03 인천사랑의 부부합창단 제12회 정기연주회
2017. 6. 3 / 오후 5시 / 초대 / 대공연장 / 032-777-2341 / 인천사랑의부부합창단

06 03 인천연수소년소녀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상상의 나라를 펼쳐요>
2017. 6. 3 / 오후 5시 / 전석 5천원 / 소공연장 / 032-818-7839 / 인천연수소년소녀합창단

06 04 인천 시민을 위한 제3회 시민음악회
2017. 6. 4 / 오후 5시 / 전석 1만원 / 소공연장 / 010-4046-4762 / 미추홀 빅밴드 오케스트라

06 08 스테이지149 어린이명작무대1 <우리는 친구다>
2017. 6. 8 ~ 6. 10 / 8,9일 오전10시, 10일 오전 11시 오후 3시 / 전석 2만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문화예술회관

06 10 패밀리 쇼!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시즌2 -인천
2017. 6. 10 ~ 6. 11 /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0분 / R석 5만5천원 S석 4만4천원 / 대공연장 / 1566-6551 / 청라아트

06 15 인천장로성가단 제21회 정기연주회
2017. 6. 15 / 오후 7시30분 / 초대 / 대공연장 / 010-6327-8202 / 인천장로성가단

06 16 스테이지149 연극선집1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2017. 6. 16 ~ 6. 17 / 16일 오후 2시,8시 17일 오후 3시 / 전석 2만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문화예술회관

06 17 2017 THE 주현미 SHOW in 인천
2017. 6. 17 / 오후2시, 6시 / R석 9만9천원, S석 7만7천원 / 대공연장 / 02-333-9009 / (주)하늘이엔티

06 18 제5회 평화음악회 <희망으로>

2017. 6. 18 / 오후 5시 / VIP석 15만원, R석 10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 대공연장 / 02-3473-8435 / 화희오페라단

06 21 제25회 새얼국악의 밤
2017. 6. 21 / 오후 7시30분 / 초대 / 소공연장 / 032-885-3611 / 새얼문화재단

06 21 2017 커피콘서트IV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의 <러시안 뮤직>
2017. 6. 21 / 오후 2시 / 전석 1만5천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문화예술회관

06 23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64회 정기연주회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5번>
2017. 6. 23 / 오후 7시30분 / R석1만원, S석7천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시립교향악단

06 23 연극 <Mr.옹을 찾아라>
2017. 6. 23 ~ 6. 25 / 23일 오후 7시30분, 24일,25일 오후 4시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원 / 소공연장 / 010-2076-8147 / 극단집현

06 25 6.25전쟁 제66주년 기념행사
2017. 6. 25 / 오전 10시 / 대공연장 / 032-440-2973 / 인천시청 보훈 다문화봉사과

06 28 세계거장들과 함께하는 그라시아스합창단 특별콘서트 스바보르나
2017. 6. 28 / 오후 7시30분 / VIP석 10만원,R석 8만원,S석 6만원 / 대공연장 / 070-7538-5303 / 그라시아스합창단

7월 Performance July

07 01 2017 악동뮤지션 콘서트 <일기장> IN 인천
2017. 7. 1 / 오후 7시 / VIP 11만원, R석 9만9천원, S석 7만7천원 / 대공연장 / 1566-6551 / 청라아트

07 01 인천시립극단 기획공연 <배우열전>
2017. 7. 1 ~ 2 / 미정 / 미정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시립극단

07 05 2017년 양성평등 주간기념 문화공연
2017. 7. 5 / 미정 / 초대 / 대공연장 / 032-440-2065 /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07 05 어린이 위생,영양 뮤지컬
2017. 7. 6 / 오전 10시30분, 오후 1시 / 무료 / 소공연장 / 032-860-9247 / 인천광역시 남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07 08 2017 클래식시리즈 III <바이에른 캄머 필하모니> 내한공연
2017. 7. 8 / 오후 7시 / R석 5만원,S석 3만원,A석 2만원,B석 1만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문화예술회관

07 08 가족뮤지컬 <인어공주>
2017. 7. 8 ~ 9 / 8일 오전11시,오후2시,4시 9일 오후 1시,3시 / 2만원 / 소공연장 / 1566-7623 / 극단해미소

07 14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65회 정기연주회 <엘가 교향곡 제1번>
2017. 7. 14 / 오후 7시30분 / R석1만원, S석7천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시립교향악단

07 14 스테이지 149 창작뮤지컬 <왕세자 실종사건>
2017. 7. 14 ~ 15 / 14일 오후 2시,8시 15일 오후 3시 / 전석 2만원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문화예술회관

07 16 인천 청소년 교향악단 클래식 행연 <세번페이 이야기>
2017. 7. 16 / 미정 / 미정 / 대공연장 / 032-438-6040 / 인천청소년교향악단

07 16 클라리넷 음악통화 <피터와 늑대>
2017. 7. 16 / 무료(선착순티켓배부) / 오후 5시 / 소공연장 / 032-424-7117 / 인천클라리넷앙상블

07 19 2017 커피콘서트V 재즈보컬리스트 이부영, <마셀 르그랑을 노래하다!>
2017. 7. 19 / 오후 2시 / 전석 1만5천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문화예술회관



07 01



07 08



07 08



07 14



07 14



07 16



07 19

※ 일정 및 프로그램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정 및 프로그램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8월 Performance August

08 08 2017 썸머페스티벌 - 루체뮤직 소사이어티의 <발레모음곡>
2017. 8. 8 / 오후 5시 / 전석 1만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문화예술회관

08 09 2017 썸머페스티벌 - 코리아립오케스트라의 <오페라 갈라 콘서트>
2017. 8. 9 / 오후 5시 / 전석 1만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문화예술회관

08 10 2017 썸머페스티벌 - 인천시립합창단 제156회 정기연주회
2017. 8. 10 / 오후 5시 / 전석 1만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문화예술회관

08 11 2017 썸머페스티벌 - 인천시립교향악단 제2회 차세대 지휘자 데뷔 콘서트 <베로벤 교향곡 제1번>
2017. 8. 11 / 오후 5시 / 전석 1만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문화예술회관

08 12 2017 썸머페스티벌 - 국악관현악과 함께 하는 출발! 팔도민요여행
2017. 8. 12 / 오후 7시 / 전석 1만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문화예술회관

08 13 2017 팝 콘서트 <웨스트워드 오케스트라 초청연주>
2017. 8. 13 / 미정 / 미정 / 대공연장 / 032-873-7772 / (사)인천음악협회

08 15 광복절행사
2017. 8. 15 / 미정 / 초대 / 대공연장 / 032-440-2528 / 인천광역시 중무과

08 22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백조의 호수>
2017. 8. 22 ~ 23 / 22일 오후 2시 8시 23일 8시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2만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문화예술회관

08 23 카피콘서트VI 즉흥음악 앙상블 블랙스트링 '장르의 경계를 허물다'
2017. 8. 23 / 오후 2시 / 전석 1만5천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문화예술회관

08 25 정통하 전국투어콘서트
2017. 8. 25 ~ 26 / 오후 7시 / VIP 11만원, R석 8만8천원, S석 5만5천원 / 대공연장 / 1600-1563 / 캄파-에이아이엔티(주)

08 27 제3회 미추홀 청소년 무용단 정기공연
2017. 8. 27 / 오후 3시 30분 / 무료 / 소공연장 / 032-765-0250 / (사)인천예총 미추홀문화회관 미추홀청소년 무용단

08 30 인천시립합창단 청소년 문화체험 마당
2017. 8. 30 / 미정 / 미정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시립합창단

6월 Exhibition June

06 01 유재민 개인전 "산에 베아리"
2017. 6. 1 ~ 6. 5 / 대전시실 / 010-4765-0579 / 유재민

06 01 모나리자로 보는 서양미술사
2017. 6. 1 ~ 6. 5 / 중앙전시실 / 010-5261-9911 / 이상구

06 01 제6회 멀티포토회원사진전
2017. 6. 1 ~ 6. 5 / 소전시실 / 010-5258-2548 / 멀티포토회

06 01 제8회 청관회전
2017. 6. 1 ~ 6. 5 / 미추출전시실 / 010-2174-9636 / 청관회

06 06 대한민국풍란연합전시회
2017. 6. 6 ~ 6. 12 / 대전시실 / 010-8480-4824 / 풍란연합회

06 06 제14회 바젤아카데미회원전
2017. 6. 6 ~ 6. 12 / 미추출전시실 / 010-7274-3601 / 바젤아카데미

06 13 제13회 인천서예진람회 및 초대작가전
2017. 6. 13 ~ 6. 19 / 대, 중앙, 소전시실 / 010-9274-9536 / 사한국서가협회 인천시지회

06 13 제1회 창작사진 "풍경소리" 전
2017. 6. 13 ~ 6. 19 / 미추출전시실 / 010-5246-6774 / 포토엔스사진클럽

06 20 황기숙 개인전
2017. 6. 20 ~ 6. 26 / 중앙전시실 / 010-6832-4953 / 황기숙

06 26 제27회 인천서예예술연구회
2017. 6. 20 ~ 6. 26 / 소전시실 / 010-9950-3351 / 인천서예예술연구회

06 26 인천민화협회 회원전
2017. 6. 20 ~ 6. 26 / 미추출전시실 / 010-2278-7794 / 인천민화협회

7월 Exhibition July

07 04 제23회 예술회전
2017. 7. 4 ~ 7. 10 / 소전시실 / 010-9345-6533 / 예술회

07 04 산업공예품 심사
2017. 7. 4 ~ 7. 6 / 미추출전시실 / 032-440-4255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07 11 제18회 이남희 개인전 <꽃의 향연>
2017. 7. 11 ~ 7. 17 / 미추출전시실 / 010-6320-0875 / 이남희

07 18 김영미 4번째 개인전
2017. 7. 18 ~ 7. 24 / 중앙전시실 / 010-3194-9341 / 김영미

07 20 산업공예품전
2017. 7. 20 ~ 7. 23 / 미추출전시실 / 032-440-4255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8월 Exhibition August

08 01 제24회 한·중 서예국제교류전
2017. 8. 1 ~ 8. 7 / 대전시실 / 010-3324-1490 / 사한국서가협회 인천시지회

08 12 2017 인천현대수채화전
2017. 8. 12 ~ 8. 21 / 대, 중앙, 소전시실 / 010-3747-8656 / 인천수채화협회

08 15 인천 도시미술 사진전
2017. 8. 15 ~ 8. 21 / 미추출전시실 / 032-440-3662 / 인천광역시 공원녹지와

08 22 우리들의 이야기 1987
2017. 8. 22 ~ 8. 28 / 대전시실 / 010-3308-7554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08 22 사진으로 보는 인천의 섬
2017. 8. 22 ~ 8. 28 / 미추출전시실 / 032-440-4052 / 인천광역시 관광진흥과



Culture Leader

회원가입안내

Pause... '쉼'이 필요하시다면,
인천문화예술회관
Culture Leader 회원이 되세요.
살이 풍요로워 집니다.



Culture Friends 제휴점 이용시 할인 제공
계간 문예정보지 「아트인천」 무료 우송
월간 Program Guide(공연안내지) 무료 우송
기획 및 시립예술단 공연 10~40% 범위 내 할인 (일반회원 2매한 / 가족회원 4매한)

회원가입방법

-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art.incheon.go.kr)에 접속 → 우측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 → '유료회원가입하기' 클릭 가입신청서 기재 후 '확인'
- 회원가입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시고, 선택하신 유료회원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아래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2-745489(문화예술회관)
- 입금확인 연락처 : 032) 420-2739 정기회원담당자

회원공연예매는 이렇게

- 매월 공연안내지 발송 시 '회원 안내문'에 회원 할인공연을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 회원 할인대상 공연에 대한 예매는 '회원 안내문'에 기재된 예매처로 예매하시면 편리합니다.
 - 회원 할인 전좌예매는 공연 3일전까지 가능하며 공연 당일 매표소에서 회원증을 제시하시면 예매하신 좌석권을 교부해 드립니다.
 - 예매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기획사로 연락바라며, 회원 예매에 불편함이 있으시면 아래의 회원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 인천문화예술회관 정기회원담당자 : 032) 420-2739



Culture Friends

제휴점

공연정보가 제공되고
공연의 감동이 이어지는 공간
Culture Friends 제휴점에서
Culture Leader 회원증을 제시해 주시면
소정의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센트럴프라자호텔

호텔객실 50% 할인
(객실 수, 주일, 부가세 포함)



센트럴프라자호텔 인천은 시청, 교육청, 경찰청 등의 행정업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세계, 롯데백화점, 뉴코아 아울렛 등의 쇼핑몰과 문화예술회관, 문학경기장과 인접해 있어 비즈니스 고객 뿐만 아니라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들도 다양한 문화와 휴양을 즐기실 수 있는 곳이다.

남동구 예술로204번길 15 Tel. 032)724-1000

다이닝카페 세렌디프

모든메뉴 10% 할인



다이닝카페 '세렌디프'는 송도신도시 커널워크에 새롭게 문을 연 고급 레스토랑이다. 감각적이고 모던한 인테리어는 물론, 인천대교의 야경과 커널워크의 산책로는 고객님께 멋진 추억을 만들어 준다. 특급 호텔 출신의 경영진과 셰프가 만든 고급메뉴와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가 제공된다.

연수구 송도동17-1 커널워크 401동(Winter) 205호 Tel. 032)261-0400

태양스튜디오(since1977)

인물/가족사진 20% 할인



40년 전통의 인물사진 스튜디오. 인천가톨릭대 문화예술교육원 사진영상과에서 16년간 강의하고 있는 류재형 사진사가 직접 촬영하여 인물의 특성에 맞는 조명과 참단장비를 갖추고 있다. 고객의 니즈를 먼저 파악하고 사진작업을 진행하여 모던한 인물사진을 만날 수 있다. (외부 촬영이 잦은 관계로 사전 예약 필수)

남동구 문화로 61, B1 태양스튜디오 Tel. 032)433-5022

본비반트 헤어

전 품목 30% 할인, 주말포함



본비반트 헤어는 롯데백화점 뒤쪽에 위치한 아카데미점과 송도신도시 센트럴로에 위치한 송도점이 있다. 아카데미점은 예술회관, 로데오거리, 신세계,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등의 쇼핑몰과 시청, 교육청, 경찰청 등 행정업무 중심지에 인접해 있으며, 최고의 디자이너가 합리와 아름다움을 드리고 있다.

남동구 예술로 140번길 35,301호(구월동) 아카데미점 Tel. 032)423-3833

로스터리 커피 하우스 베피아르

모든메뉴 10% 할인



예술회관 옆 로스터리카페 '베피아르' (pet art 작은 예술공간)가 있다. 핸드드립으로 원두의 풍미를 절묘하게 담아낸다. 세계 곳곳의 스페셜티 커피를 고르고 볶고 내리는 주인의 손길은 마에스트로의 몸짓처럼 신중하고 단호하다. 음악과 연극 그리고 커피, 삶이 되는 예술. 그 어디쯤에 베피아르가 있다.

예술회관 소공연장 건너편, 남동구 문화로 93-1 Tel. 032)423-3787

포린커피

커피 및 음료 10% 할인



예술회관 주차장 입구의 건너편에 위치한 포린커피 (Fall in coffee)는 주인장이 직접 로스팅한 신선한 아라비카 원두만을 사용하여 커피를 내린다. 산지별로 특별한 향의 핸드드립커피를 맛볼 수 있으며 원두도 판매하고 있다. 여름에는 '진짜와 일 스무디'와 국내산 팔로로 만든 '술직한 팔빙수'를 만날 수 있다.

예술회관 주차장 입구 건너편, 남동구 문화로 61 Tel. 032)429-1107

엔타스면세점

최대 15% 할인 골드카드 발급



구월동에 위치한 엔타스면세점은 인천 유일의 시내 면세점으로 패션 명품브랜드를 비롯해 시계, 주얼리, 화장품, 향수, 선글라스, 그리고 국산품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다. 건물 내에는 (주)엔타스가 운영하는 고급 레스토랑 경복궁 식스토가 입점돼 있어 연세 쇼핑뿐만 아니라 외식까지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남동구 구월동 1128-3 엔타스빌딩 (인천 1호선 예술회관역) Tel. 032)439-5900

Culture Friends 제휴점을 모읍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공연의 감동이 이어지는 공간으로
Culture Friends 제휴점에 동참하실 업체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 기획운영팀 Tel. 032)420-2735

인천문화예술회관 약도 및 교통편 안내



■ 지하철 이용시

국철 1호선 부평역 또는 인천지하철2호선 인천시청역에서 인천지하철1호선 국제업무지구방면으로 환승하여 예술회관역 하차 6번 출구

■ 버스이용시

- 예술회관역 정류장 간선도로(파랑) : 21, 42, 700-1, 754, 903
- 문화예술회관 정류장 지선버스(초록) : 523-1, 534
- 신세계백화점(터미널) 정류장 (인천시청방면 도보 10분)
간선도로(파랑) : 3-2, 4, 5, 6, 6-1, 11, 21, 22, 27, 35, 36, 38, 42, 46, 82, 111-2, 700-1, 754, 780-2
지선버스(초록) : 31(순환), 514-1, 520, 523-1, 534
좌석버스 : 303, 800 금행버스 : 903, 908 광역버스 : 1300
- 인천시청 정류장 광역버스 : 1600, 1601, 9100 (터미널방면 도보 20분 혹은 인천시청역에서 지하철 이용시 1정거장)

■ 자가용 이용시

- 경인고속도로
도화IC → 도화초교사거리(주안역방면 우회전) → 주안역삼거리(문학경기장방면 우회전) → 구 시민회관 사거리(석비위 방면 좌회전) → 시청역사거리(문화예술회관 방면 우회전) → 예술회관역 →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우회전)
-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 → 남동경찰서 사거리(문화예술회관 방면 좌회전) → 중앙공원 사거리(문화예술회관 방면 우회전) → 종합문화 예술회관 주차장(우회전)

■ 주차안내

- 주차요금
- 처음 30분 : 일반차량 600원 (경차 및 장애인 차량은 할인 적용 됩니다.)
- 정산소에 공연티켓 또는 관람확인증 제출 시 1,500원입니다.
- 관람확인증은 공연장 로비 휴대품보관소에서 배부합니다.
- 주차시설 이용문의처 :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032)579-2701~3
- ※ 교통이 혼잡하오니 기급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상설
공연프로그램

금요일 & 토요일 야외예술마당 황금토끼

황금같은 금요일 & 토요일 끼있는 무대

2017.4.28금 - 9.30토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매주 금/토요일 오후 7시 30분 무료공연

* 우천시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금요일 & 토요일 야외예술마당 황금토끼 공연일정

금요일예술무대 일정

4.28 - 9.29

일정	공연명
4월 28일	인천시립극단 <알, 비정전>
5월 12일	인천시립무용단과 함께하는 <우리 춤의 향연 1>
5월 19일	재즈로 엮어가는 <시민콘서트>
5월 26일	팝카펠라 원더러의 <뮤직뽕>
6월 02일	인천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오페라 아리아의 밤>
6월 09일	인천시립교향악단 브라스 앙상블 <브라스 판타지마 1>
6월 16일	인천시립무용단과 함께하는 <우리 춤의 향연 2>
6월 23일	인천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뮤지컬 하이라이트>
6월 30일	시흥 윈드오케스트라 <행복배달 문화콘서트>
7월 07일	인천시립합창단이 들려주는 <가곡 이야기>
7월 14일	와이매직컴퍼니 <조이매직서커스>
8월 25일	인천시립무용단과 함께하는 <우리 춤의 향연 3>
9월 15일	인천시립무용단과 함께하는 <우리 춤의 향연 4>
9월 22일	인천시립극단 <유랑 극단>
9월 29일	인천시립교향악단 브라스 앙상블 <브라스 판타지마 2>

공연 제외일자 5.5 어린이날 / 7.28 - 8.5 폭서기 / 8.28 - 9.10 스테이지는 스크린

토요일상설무대 일정

5.6 - 9.30

일정	공연명
5월 06일	어린이를 위한 가족뮤지컬 <별주부전>
5월 13일	중국기예단과 함께하는 <추억의 서커스>
5월 20일	클래식 이야기 <꽃향기 노래되어>
6월 10일	이문주 국악예술단 <경서도 소리와 한국무용의 만남>
6월 17일	한국블루그래스음악클럽 <흥겨운 블루그래스와 요들송의 향연>
6월 24일	퓨전국악단 구름 <뛰어라 황금사자>
7월 01일	갯스틱의 <유쾌한 콘서트>
7월 08일	아이랑의 <K-pop 나들이>
7월 15일	한울소리 가족 타악극 <유쾌한 드러머>
7월 22일	사할스런 고장이 팝콘 <신나는 댄스타임>
8월 12일	인문챔버오케스트라의 <好樂好樂 오락오락콘서트>
8월 19일	The Voice of <인담 콘서트>
8월 26일	미쓰고텐트 <추억의 7080>
9월 16일	가·무·악이 함께하는 <춤추는 대한민국>
9월 23일	평양예술단과 함께하는 <우리 아리랑>
9월 30일	시인과 함께하는 <두드림의 무한질주>

名作, 달빛 스크린으로 들어오다

STAGE ON SCREEN



2017. 8. 30(수)~9. 9(토) 7시 30분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무료관람)

8.30 🎵 프랭크 와일드혼의 뮤지컬 <자립&하이드>
 8.31 🎵 아돌프 아당의 고전발레 <해적>
 9. 1 🎵 루돌프 누레예프의 고전발레 <돈 키호테>
 9. 2 🎵 아티아&코옌의 뮤지컬 <1789, 바스티유의 연인들>

9. 6 🎵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9. 7 🎵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9. 8 🎵 모차르트의 오페라 <후궁탈출>
 9. 9 🎵 클로드-미셸 쇤베르크의 뮤지컬 <미스 사이공>

● 우천시 또는 기타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은 취소 또는 일요일로 순연될 수 있습니다.